

제주학연구 4

소멸위기 언어 보존 사례 분석을 통한 제주어(제주방언) 보존 방안

양 창 용 · 양 세 정

Jeju Development Institute 제주발전연구원
Research Center for Jeju Studies 제주학연구센터 <http://jst.jdi.re.kr>

발 간 사

지난 2010년에 유네스코가 소멸위기 언어로 제주어를 지정함으로써 제주어의 독자적 가치와 보존 전승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보존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어는 중요한 세계적 문화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최근 제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사용환경이 축소되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언어 활성화(revitalization)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구체화되어야 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전승해 나가기 위해, 제주어 연구 및 보존에 대한 인식을 국내외로 확장·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멸위기 언어 보호 노력의 사례를 살펴서 제주어의 보존과 활성화 정책 마련과 더불어 국제적 기구가입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실제 사용되는 언어 등을 채집하고 기록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제주어를 실생활에 널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도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제주어 집중 사용 지역 선정 및 전통 문화 선정’으로 지속보존의 계기를 만들고, ‘제주어 교사나 지역 언어 전문가 양성’, ‘연구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등 행정과의 다각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주신 양창용 교수님과 양세정 선생님 두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10월

제주발전연구원
원 장 공 영 민

연구요약

I.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제주어는 제주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 자산으로 그 보존과 전승의 가치가 인정됨. 하지만 최근 제주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축소되고 또한 제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 2010년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함으로써 제주어의 독자적 가치가 인정됨. 제주어의 독자적 가치 인정은 곧 제주 문화 정체성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제주어를 보존하는 것은 제주 문화 보존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언어를 보존하고 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네스코(UNESCO)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 학계, NGO 단체, 정부, 및 연구소 등의 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 언어 보존(preservation)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일은 언어의 수집, 기록을 통한 언어 자료화(documentation)를 구축하는 것임. 최근 첨단 기술의 발달은 해당 언어 연구와 분석, 그리고 기록을 통한 언어 자료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 인구 감소는 소멸위기 언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소멸위기 언어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활성화(revitalization)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야 함
- 제주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전승해 나가기 위해 제주어 연구 및 보존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확장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멸위기 언어 보호 노력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제주어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됨

2. 연구 범위와 방법

- 본 연구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언어에 대한 유형론적(typological) 이해와 몇 개 지역의 소멸위기 언어 사례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제주어 보존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문헌자료 검토, 소멸위기 언어 보존에 대한 워크숍 및 학술대회 참여, 소멸위기 언어가 사용되는 현장 방문 및 연구자 인터뷰를 통한 실증적 탐구를 진행함

3. 연구 내용

- 유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언어를 살펴보는 것은 소멸위기 언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이를 위해 대륙별 사용 언어와 소멸위기 언어 현황을 간략하게 비교, 설명해 보고자 함
- 개인,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언어 보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소멸위기 언어 사례를 주요 대륙(유럽, 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에서 선별하여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실시하고 있는 언어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함
- 타 소멸위기 언어의 경우 어떻게 다양한 언어 자료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울러 언어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과 교육적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이러한 사례 탐구를 통해 제주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 언어적 환경, 이를 둘러싼 사회적 변인을 이해하고,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 효과적인 언어 자료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더 나아가 사례 탐구를 통해 제주어를 실생활에 널리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제안 및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 최근 소멸위기 언어 연구와 보존에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들 기구에서 소멸위기 언어 보존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주어 보존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II. 소멸위기 언어의 이해

1. 소멸위기 언어란

- 언어 사용자들이 더 이상 해당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 의사소통 상황에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할 때
- 세대 간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즉 새로운 화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2. 소멸위기 언어의 기준

- 유네스코가 제시한 사라져가는 언어를 결정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세대 간 언어 전승 정도
 -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수
 - 전체 인구 중에서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화자의 비율
 - 현재 소멸위기 언어를 사용하는 범위/분야의 정도
 - 새로운 영역 혹은 미디어에 반응 정도
 - 언어 교육을 위한 자료와 읽기 자료의 이용 정도
 - 정부의 언어 정책
 - 지역 사회가 해당 언어에 대해 갖는 태도

3. 언어 기록과 활성화

- 언어 자료화(documentation)는 단순히 보존(preservation)이나 유지(sustaining)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언어 사용의 활성화(revitalization)를 위한 선행 작업이라 할 수 있음. 보존은 통조림이나 잼과 같이 아무런 변화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인데 반해, 언어 자

료화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언어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 문화 양상을 수집, 기록 및 정리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언어 자료화는 다양한 기술 매체를 활용하여 한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다양한 양상을 수집(collecting), 녹음(recording), 분석(analyzing), 그리고 기록/보관 (archiving)하는 복합적 과정
- 언어 활성화(revitalization)는 언어가 소극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변화(shift)를 주는 과정이기도 함. Fishman(1991)은 사라져 가는 언어 사용 뒤집기(reversing language shift)를 유도하기 위해, 즉 언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검토할 것을 제안
- 최근 교육, 행정의 정책 등을 통해 언어 활성화 노력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음

III. 소멸위기 언어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의 배경

- 대륙 별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언어는 오랜 역사 동안 부침을 거듭해왔으며, 현재 소멸위기에 직면하였지만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가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례 조사를 위해 선정된 소멸위기 언어는 우리와 같이 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에 위치하여 있음. 가속화되는 현대화 속에서 이들 소멸 위기 언어 보존을 위해 해당 사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사례 탐구는 제주어 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생활에서 제주어를 널리 사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2. 사례 분석 언어

○ 인디언 언어

- 인디언 언어 보존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인디언 커뮤니티는 서로 연합체를 이루어 언어 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학, 관련 연구소 등에서는 인디언 언어의 보존을 위해 효과적인 언어 연구 방법, 최첨단 장비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언어 자료화에 힘쓰고 있음
- 아울러 이들은 언어 분석, 학습을 위한 교육 세미나 개최, 교육 자료 개발 등을 통해 언어가 실생활에 널리 상용화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개발, 소개함으로써 언어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언어 교육에 있어 조기 교육, 몰입 교육, 그리고 인디언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도제교육 제도(Master-Apprentice Program) 등과 같은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 행·재정적 측면에서도 자치정부,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아이리쉬어

-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어로 지정되었고, 최근에는 아이리쉬어 보존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아이리쉬어는 대다수의 아일랜드 사람들에 의해 제2언어로 학습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제1언어로 사용되고 있음. 현재 EU 등에서 공식어로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음
- 아이리쉬어를 사용하는 특정지역이 존재하는데 이들 지역을 총칭하여 겔타흐트(Gaeltacht)라고 부름. 이들 지역은 의미적으로 아이리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뜻함

○ 카탈란어

- 자치 정부에서 카탈란어를 사용하는 등 언어 복원에 노력하고 있음
- 카탈란어를 사용한 다양한 미디어, 영화 등이 제작되어 카탈란어 보존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
- 초등과 중등교육에 카탈란어만을 사용하거나 특정 교과목을 카탈란어를 사용해 가르치는 학교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카탈란 언어와 문학 강좌가 여러 대학에서 개설되어 전공으로 학위를 받을 수도 있음

○ 마오리어

- 1987년 "마오리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마오리어는 공식어의 지위로 올라섬. 이와 함께 마오리어 몰입학교가 생겨남
- "마오리어 위원회"가 마오리어를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일상생활의 언어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구성됨. "마오리어 위원회"는 마오리어 전문 용어의 발전과 교육에 대한 내용을 조언하고 지도함
- 최근에는 마오리 원어민 뿐 만 아니라 비원어민이 협력하여 마오리어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오키나와어

- 일본 국내외에서 많은 학자들이 오키나와 언어, 문화 등 오키나와 학(Okinawan Studies)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3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오키나와의 전통 문화, 언어 현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오키나와 현(도) 차원에서 문화, 전통 유지를 마련하기 보다는 개별 도시 중심으로 문화 보존을 위한 부서가 설립됨. 1955년 오키나와 시에 설립된 문화담당 부서를 필두로 각 도시에 이와 비슷한 담당부서가 설립됨. 1994년 오키나와 현(도) 정부에서도 문화 관련 부서를 설립하여 전통 문화 및 언어 진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연구자들 간의 학술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언어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학자들이 오키나와 언어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오키나와어에 대한 논문과 책자를 발표함으로써 오키나와어의 학술 가치를 국제적으로 높여가고 있음

3. 분석의 시사점

- 각 사례별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함께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여 세대 간 언어 전승이 시작되고 있음
- 소멸위기 언어에 대한 관심은 해당 언어 사용자들의 정체성 확립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소멸위기 언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으로써 사라지는 언어에 대한 자료화(documentation)를 폭넓게 구축하고 있고, 언어 사용을 활성화(revitalization)해 나가기 위한 교육과 전승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 국제기구들이 소멸위기 언어 보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써 소멸위기 언어 보존과 활성화에 대한 지역 사회 및 국가 간, 그리고 연구 학자 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고 있음.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 학자 간의 빈번한 접촉 그리고 특정 지역/개인의 노력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IV. 정책 제언

- 제주어 현황 및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
- 제주어 집중 사용 지역 선정 및 전통 문화 선정
- 행정의 다각적인 협조체제 구축
- 제주어 교육 정책의 다변화
- 제주어 교사 및 지역 언어 전문가 양성
- 제주어 도제 교육 제도 도입
- 제주어를 통한 제주의 정체성 정립
- 연구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국내 및 국제네트워크 강화
- 매스 미디어 역할의 강조
-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사용 강조
- 제주어 현대화를 위한 노력

V. 연구 결과

- 제주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멸위기 언어인 제주어 보존을 위해 외국의 사례 및 국제적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어 보존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 것은 본 연구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범위와 방법	7
3. 연구 내용	9
II. 소멸위기 언어의 이해	10
1. 소멸위기 언어	10
2. 세계의 언어 현황	11
3. 소멸위기 언어 이해를 위한 기준	14
4. 소멸위기 언어 현황	15
5. 국제사회의 노력: 유네스코	16
6. 언어 다양성: 언어 자료화 및 활성화	19
7. 언어 부활의 사례: 히브리어	29
8. 제주어 현황	30
III. 소멸 위기 언어 사례 분석	32
1. 분석 언어 선정	32
2. 조사 방법	32
3. 미국 인디언 언어	33
1) 사례탐구 I	37
2) 사례탐구 II	45
4. 아이리쉬어(Irish)	49
5. 카탈란어(Catalan)	56
6. 마오리어(Maori)	62
7. 오키나와어(Okinawa)	66
8. 분석의 시사점	72

IV. 제주어 정책 제언	75
V. 연구 결과	89
참 고 문 헌	91
ABSTRACT	93

표 목 차

<표 II-1> 가장 많은 언어를 갖고 있는 국가	13
<표 II-2> 인터넷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언어	13
<표 II-3> 소멸 위기 언어 현황	15
<표 II-4> 대륙별 소멸위기 언어 현황	15
<표 II-5> 소멸위기 언어 비율	16
<표 III-6> 미국 대표 인디언 별 언어 화자 분포	34
<표 III-7> 겔타트 지역의 인구 변동과 아이리쉬어 화자 비율	52
<표 III-8> 아이리쉬어 사용 인구 변동 현황	53
<표 III-9> 카탈란어를 말하고 이해하는 인구 비율	57

그림 목 차

<그림 I-1>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 홈페이지	3
<그림 I-2> 스미쏘니언 연구소 소멸위기 언어 홈페이지	4
<그림 I-3> 구글 소멸위기 언어 프로젝트 홈페이지	5
<그림 I-4> 에쓰노로그의 소멸위기 언어 프로젝트 홈페이지	6
<그림 II-5> 세계의 언어 현황	11
<그림 III-6> 미국 인디언 언어 분포	33
<그림 III-7> 미국 인디언 부족 분포	34
<그림 III-8> 세미나를 통한 수업지도안 개발 사례	49
<그림 III-9> 아일랜드 지도	50
<그림 III-10> 1926/1956 갤택트 모습 비교	52
<그림 III-11> 스페인 언어 지도	56

I. 서론

'I dream in *Chamicuro*,

but I cannot tell my dreams to anyone,
because no one else speaks *Chamicuro*,
It's lonely being the last one.'

(Natalia Sangama, a *Chamicuro* grandmother, 1999)

'저는 *Chamicuro*언어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나의 꿈을 말할 수 없네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Chamicuro*언어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된다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나탈리아 산가마, *Chamicuro*언어를 말하시는 할머니, 199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 7천 여 개의 언어 중 대다수 언어가 소멸 위기에 처함. 근대화의 진행, 매스 미디어의 발달 등에 따라 언어 사용 환경이 바뀌고 또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감소함에 따라 많은 언어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됨
- 언어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무형자산으로 언어 다양성은 각 언어 사용자들의 문화적 독특성을 반영함. 그러므로 한 언어를 상실한다는 것은 곧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역사 인식, 그리고 사물을 대하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생태 양식의 사멸을 의미함. 결과적으로 언어 소멸은 직접적으로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단절로 이어짐¹⁾

- 이에 언어를 보존하고 사라지는 언어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네스코(UNESCO)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 정부, 학계, NGO 단체 및 연구소 등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함
- 언어 보존(preservation)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언어를 수집, 기록하여 언어 자료화(documentation)를 구축하는 것임. 최근 다양한 첨단 기술의 발달은 언어 자료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아울러 소멸위기 언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용 인구의 감소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멸위기 언어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될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음. 언어 보존 연구에서 언어 활성화(revitalization)는 이러한 일련의 언어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총칭함
- 제주어는 제주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 자산으로 그 보존과 전승의 가치가 인정됨. 하지만 최근 제주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축소되고 또한 제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 2010년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함으로써 제주어의 독자적 가치가 인정됨. 제주어의 독자적 가치 인정은 곧 제주 문화 정체성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제주어를 보존하는 것은 제주문화 보존과 일맥상통함
- 특히 제주어가 사용되는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서서히 사라짐에 따라 제주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줄어들고 있음. 결과적으로 제주어 사용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1) 각 언어의 사멸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생태학적 가치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는 결과를 낳는다. 각 언어는 세상을 구성하는 인간 사회의 독특한 경험을 표현해 준다. 그래서 어떤 단 하나의 언어로 표현된 지식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본적 질문에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언어가 사라지는 순간마다, 인간 언어의 구조와 기능, 인류 역사,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생태 환경을 유지하고 이해하는 단서가 줄어들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들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은 언어의 소멸로 그들 자신의 인류학적, 문화적 정체성의 소멸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된다 (Hale, 1998).

- 다양한 제주의 문화유산(예, 칠머리당굿)과 제주어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제주가 독특한 문화 환경을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이러한 문화의 핵심이 되는 제주어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제주의 정체성 계승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주어를 채집하고, 체계적인 자료화(documentation)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 활성화(revitalization)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제주어 보존을 위해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소멸위기 언어의 보존을 위해 국제기구, NGO 단체 및 연구소 등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몇 개의 단체를 예로 들어 보면,
 - 유네스코(UNESCO): 언어를 무형문화재의 하나로 중요하게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소멸되어 가는 언어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언어 보존을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소멸위기 언어 보존과 활성화에 대한 지역 사회 및 국가 간, 그리고 연구 학자 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고 있음.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 학자 간의 빈번한 접촉 그리고 특정 지역/개인의 노력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그림 I-1>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 홈페이지



(출처:<http://www.unesco.org/new/en/culture/themes/endangered-languages/>)

- 스미쏘니언 연구소(Smithsonian Institute):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스미쏘니언 연구소는 언어 뿐 만 아니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펴고 있음. 소멸위기 언어를 녹음하고 자료화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언어 보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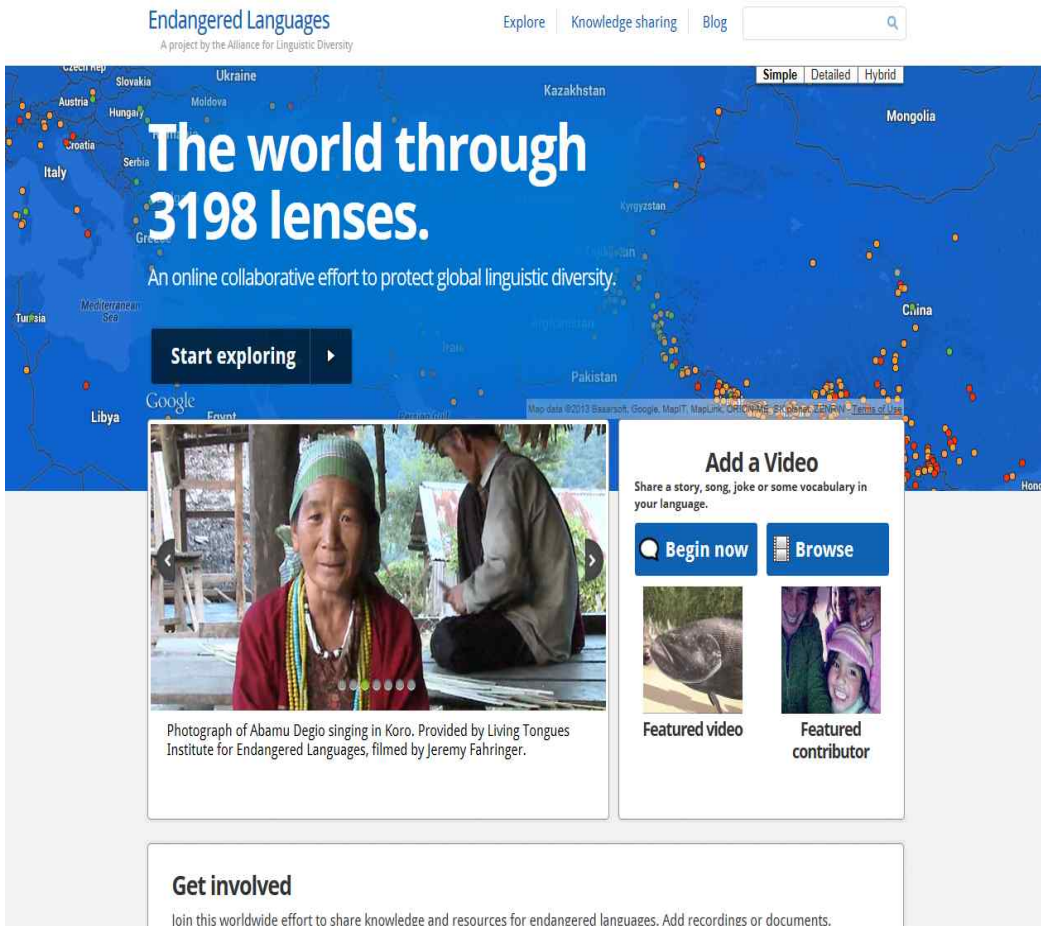
<그림 I-2> 스미쏘니언 연구소 소멸위기 언어 홈페이지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Smithsonian Folklife Festival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Smithsonian Institution logo and links for '2013 FESTIVAL', 'VISITOR INFORMATION', 'EXPLORE THE FESTIVAL', 'SUPPORT US', 'ABOUT US', and 'SPONSORS'. Below this is the main header 'Smithsonian Folklife Festival' in green, followed by a dark blue banner with the text 'Endangered Languages and Cultural Heritage' on the left and 'ONE WORLD, MANY VOICES' in large white letters on the right. A search bar i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Below the search bar is a section for '2013 SMITHSONIAN FOLKLIFE FESTIVAL' with a list of links: 'Introduction', 'Endangered Languages Story Map', 'Language Communities', 'Participants', 'Program Sponsors', 'Music Playlist', 'Related Resources', 'Video and Audio Gallery', 'Blog Posts', and 'Program Team'. A central photograph shows a woman, Yaro Richo, looking at a recording device while three children look on. Below the photo is the caption: 'Yaro Richo watches a Koro song recording with children in Kajō village, East Kameng District, Arunachal Pradesh, India. Photo by K. David Harrison'.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quote: 'Language is the roadmap to culture.'

(출처: http://www.festival.si.edu/2013/One_World_Many_Voices/)

- 구글(google): 최근 구글은 하와이 대학과 함께 소멸위험에 처한 언어 보존을 위한 언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언어 자료 수집과 언어를 둘러싼 다양한 생활 문화 기록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그림 I-3> 구글 소멸위기 언어 프로젝트 홈페이지



(출처: <http://www.endangeredlanguages.com/>)

- 에스노로그(Ethnologue): 전 세계 언어에 대한 유형론적(typological)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으로 여름 언어 학교(Summer Institute of Language)로 널리 알려져 있음. 원래는 성경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언어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됨. 이 기관에서 발행하는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는 세계 언어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최근에 16번째 판을 출간하였음

<그림 I-4> 에쓰노로그의 소멸위기 언어 프로젝트 홈페이지

(출처: <http://www.ethnologue.com/>)

- 앞서 살펴보았듯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소멸위기 언어를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국제 간 연구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음. 학자들 간의 협력 연구를 통해 폭넓은 연구 자료가 공유되고 있는데, 이는 언어 자료화 및 활성화 연구에 직접적인 촉매가 되고 있음
- 제주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전승해 나가기 위해 제주어 연구 및 보존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확장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멸위기 언어보호 노력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제주어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제주어가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제주 도민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경험적 방안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의 소멸위기 언어 보존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곧 제주어의 현재 위상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제주어 보존을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에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외국의 사례 연구는 제주어와 외국의 소멸위기 언어 간 간접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향후 발전적으로 학자들 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제주어에 대한 국제인식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초 제공

2. 연구 범위와 방법

- 본 연구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언어에 대한 유형론적(typological) 이해와 몇 개 지역의 사례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제주어 보존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문헌 자료 검토, 소멸위기 언어 보존에 대한 워크숍 및 학술대회 참여, 소멸위기 언어가 사용되는 현장 방문 및 연구자 인터뷰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함

1) 문헌 자료 분석

- 기존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 언어에 대한 이해와 소멸위기 언어 현황을 조명해 볼 것임. 본 연구의 사례 언어 또한 검토되는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선별될 것임
- 기존 문헌 자료 검토는 제주어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멸위기 언어 사례를 선별하고, 소멸위기 언어 보존 및 언어 사용 현황 이해에 기초를 제공함
- 기존 문헌 자료로는 출판 저술, 학술 저널에 기재된 관련 논문,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하였고, 최근 여러 국제기구에서 진행하는 가능한 많은 프로젝트를 검토하였음

2) 워크숍 및 학술대회 참여

-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한 교육 관련 워크숍에 참여하여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음. 본 연구자는 미국 토착 언어 연구소(Indigenous Language Institute)가 인디언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개최한 조기교육 워크숍에 참석하여 각 인디언 언어들이 처한 상황 이해와 이들을 보존하기 위한 인디언 부족들의 활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워크숍에 참가한 각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언어 정책 및 언어 교육에 대한 소개와 언어 보존에 대한 노력을 발표함
 - 워크숍에서는 언어 보존을 위한 언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전문가의 심도 있고 실제 현장에서 응용 가능한 강의가 진행됨
 - 워크숍에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세미나 참석자들은 직접 자신의 부족 언어 교육을 위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해보고, 실제 모의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서로 간의 언어 보존과 언어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

3) 현장 조사 및 인터뷰

- 지리적으로 제주에 가까운 지역(예, 오키나와)을 방문하여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어 보존과 전승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봄. 아울러 오키나와 언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관련 학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소멸위기 언어에 보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함
 - 언어 보존을 위한 민간, 학계, 그리고 정책 당국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봄
 - 소멸위기인 오키나와어가 실제 생활환경 및 주변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
 - 오키나와어 보존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준비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여 언어 보존 실태에 대한 실용적이고, 활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함

- 현장 참여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현재 제주어 보존 상황 이해를 위한 비교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며, 향후 제주어 보존 방향 및 노력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

3. 연구 내용

- 유형론적 측면에서 세계 언어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것은 소멸위기 언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이를 위해 대륙별 언어 현황 및 소멸위기 언어 현황을 간략하게 비교, 설명해 보고자 함
- 개인,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언어 보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소멸위기 언어 사례를 주요 대륙(유럽, 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에서 선별하여 살펴보고, 이들이 실시하고 있는 언어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함
- 향후 제주 상황에 부합되는 제주어 보존 정책 수립과 교육 활성화를 위해 본 사례 연구는 외국의 소멸위기 언어 정책 및 언어 교육 현안, 더 나아가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사회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함
- 최근 유수의 국제기구가 소멸위기 언어 연구와 보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소멸위기 언어 보존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주어 보존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소멸위기 언어의 이해

1. 소멸위기 언어

○ 언어가 위협을 받고 있음은

-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의 길을 걸을 때
- 언어 사용자들이 해당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 의사소통 상황에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할 때
- 세대 간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즉 새로운 화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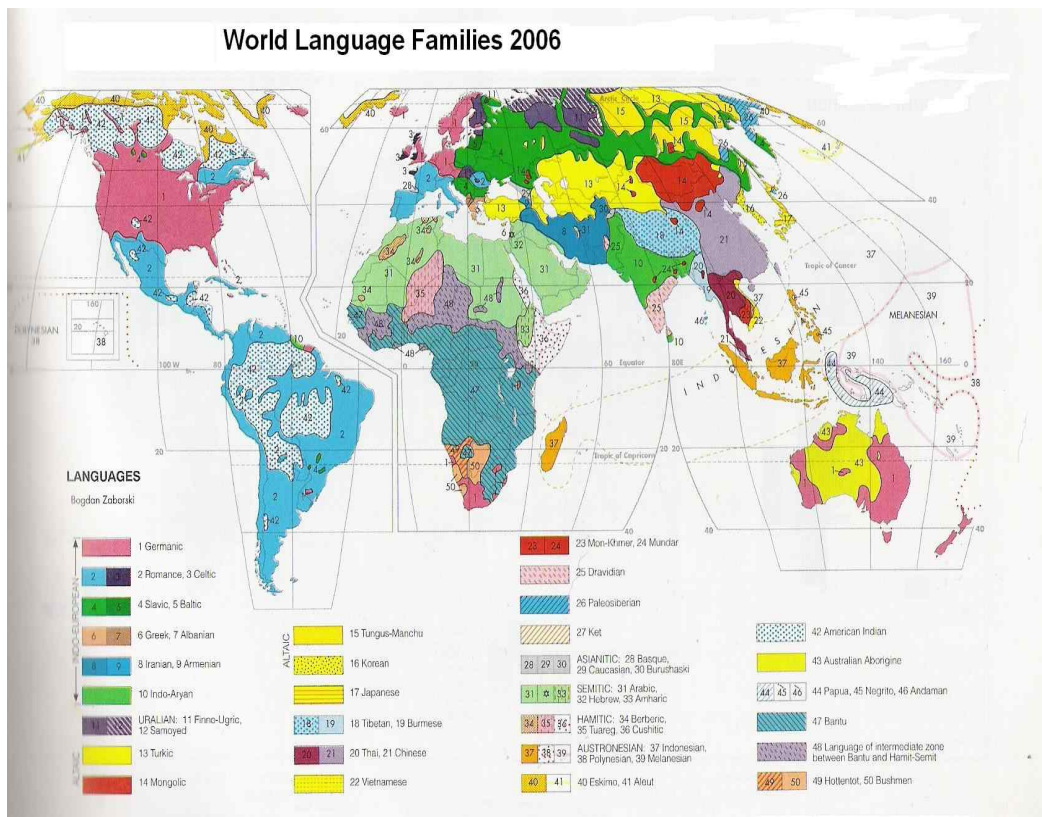
○ 언어가 위협을 받게 되는 이유 :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 외적 요인 : 군사, 경제, 종교, 문화, 교육적 종속 등 강제적 수단에 의해 언어 사용에 제약이 가해짐
- 내적 요인 : 언어 사용자들 혹은 해당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언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경우
-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 위협을 받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불리한 사회적 위치가 그들의 문화적 열등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함. 결과적으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포기하고, 사회적 신분 상승과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들의 문화적 자산을 사용하지 않게 됨
-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모두가 세대 간 언어, 문화의 전승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2. 세계의 언어 현황

- Krauss(1992):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는 구어(oral language)는 5,600-10,000정도로 추산됨
- 에스노로그(Ethnologue): 7천 여 개의 언어가 구어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
- 세계 언어 현황

<그림 II-5> 세계 언어 현황



Source: Goode's World Atlas, 21st ed.

(출처: <http://www2.johnabbott.qc.ca/~geoscience/ME/WorldLanguageFamiliesMap.htm>)

- 지역별 언어 분포: 아시아
 - Gunnemakr(1991): 구소련 지역을 제외하여 1,600개 정도가 존재함
 - 에스노로그(Ethnologue): 세계 언어의 32%인 2,165개 정도가 존재함

- 지역별 언어 분포: 유럽과 중동
 - Krauss(1992): 세계 언어의 4%인 275개의 언어가 존재함
 - 유럽 지역에는 225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이중에 94개는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됨
- 지역별 언어 분포: 아메리카
 - 남미와 북미 전체를 포함하는 아메리카 대륙에는 전 세계 언어의 15%인 1,000 여 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Krauss(1992): 900 정도의 언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함
 - Gunnemark(1991): 인디언, 에스키모 언어를 포함하여 1,000 - 1,100 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함
- 지역별 언어 분포: 아프리카
 - Gunnemakr(1991): 1,200 - 1,500 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함
 - Krauss(1992): 1,900 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함
 - 에쓰노로그(Ethnologue): 전 세계 언어의 31%인 2,011개의 언어가 아프리카 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함
- 지역별 언어 분포: 태평양 지역
 - Gunnemakr(1991): 약 1,200 개 정도의 언어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함
 - 에쓰노로그(Ethnologue): 전 세계 언어의 19%인 1,302개의 언어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함
- 정리해 보면
 - 전 세계의 81%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존재하고 있음
 - Krauss(1992)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3,000 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함
 - 에쓰노로그(Ethnologue)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3,467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함
- 100개 이상의 언어를 갖고 있는 국가 [Krauss 1992]

<표 II-1> 가장 많은 언어를 갖고 있는 국가

500개 이상의 언어	200개 이상의 언어	100개 이상의 언어
1. Papua New Guinea 850	1. Nigeria 410	1. Philippines
2. Indonesia 670	2. India 380	2. Russia
총계: 1,520	3. Cameroon 270	3. USA
	4. Australia 250	4. Malaysia
	5. Mexico 240	5. China
	6. Zaire 210	6. Sudan
	7. Brazil 210	7. Tanzania
	총계: 1,970	8. Ethiopia
		9. Chad
		10. Vanuatu
		11. Central African Republic
		12. Myanmar(Burma)
		13. Nepal

- 위 <표 II-1>에 포함된 22개의 국가는 전 세계 나라 수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언어는 전 세계 언어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인터넷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언어

<표 II-2> 인터넷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언어(%)

언어	2005	2000
English	32	51.3
Chinese	13	5.4
Japanese	8	8.1
Spanish	6	5.8
German	6	5.9
French	4	3.9
Korean	3	3.5
Italian	3	3
Portuguese	3	*
Dutch	2	1.8
Other	20	11.3

[출처: Graddol (2006)], [* : 기록되어 있지 않음]

- Graddol(2006: 45)은 영어 사용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 보다 많은 비영어권 화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함
 - 다양한 언어의 표기법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지원됨
 - 특정 지역에서 지역어가 지역 정보를 위해 인터넷에서 널리 사용됨
 -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등과 같이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비즈니스가 각 국가별 언어로 운영됨
 -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친구, 가족 간의 친밀한 대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음
 - 최근에 인터넷이 다 언어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을 살펴볼 때 인터넷을 활용한 소멸위기 언어 보존 노력이 기대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3. 소멸위기 언어 이해를 위한 기준

- 유네스코가 제시한 사라져가는 언어를 결정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봄. Breenzinger *et al.* (2003)은 사라져가는 언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세대 간 언어 전승 정도
 -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수
 - 전체 인구 중에서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화자의 비율
 - 현재 소멸위기의 언어를 사용하는 범위/분야의 정도
 - 새로운 영역 혹은 미디어에 반응 정도
 - 언어 교육을 위한 자료와 읽기 자료의 이용 정도
 - 정부의 언어 정책
 - 지역 사회가 해당 언어에 대해 갖는 태도
 - 언어 자료화의 양과 질

4. 소멸위기 언어 현황

- Krauss(1992)는 언어를 ‘세대 간 전승,’ ‘화자 수’ 그리고 ‘공식적인 언어 상태’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안전(safe), 위협(threatened), 소멸위기 (moribund)세 그룹으로 나눔
- 소멸위기 언어는 어린이들에 의해 더 이상 학습되지 않는 언어를 지칭함. 화자의 수를 중심으로 1백만 이상이면 안전한 언어로 분류하고 5 천명 이하의 화자를 가진 언어를 소멸위기에 직면할 언어로 분류함
- Krauss의 분류에 의한 언어 현황은 다음 <표 II-3>와 같음

<표 II-3> 소멸 위기 언어 현황

안 전	화자 1백만 이상 언어	200-250
	화자 50만-1백만 언어	250-300
	화자 10만 -50만 언어	약 600
위 험	화자 수가 5천 이하 언어	
소멸위기 언어	- 화자 수가 5천 이하 - 언어를 배우는 아이가 없음	전체 언어의 20-30% (1,200-3,000개 정도)

- <표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멸위기 언어, 즉 배우는 아이가 없는 5천 명 이하의 화자를 가진 언어는 1,200에서 3,000개 정도로 추산됨

<표 II-4> 대륙별 소멸 위기 언어 현황

지 역	사 멸	소멸위기	생 존	총 계
아 프 리 카	46(2%)	247(12%)	1,814(86%)	2,107
아 메 리 카	183(16%)	476(43%)	456(41%)	1,115
아 시 아	47(2%)	552(24%)	1,714(48%)	2,313
유 럽	8(4%)	95(48%)	92(70%)	195
태 평 양	128(9%)	278(20%)	957(70%)	1,363
총 계	412(6%)	1,648(23%)	5,033(71%)	7,093

(출처: Whalen and SiMons 2012: 159)

- <표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소멸위기에 처한 언어는 전체 언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1천 6백 개 정도로 추산됨

<표 II-5> 소멸 위기 언어 비율

인구 수	언어 수	소멸위기 언어 수	소멸위기 비율
1 to 9	123	123	100.0%
10 to 99	335	320	95.9%
100 to 999	1,032	380	36.8%
1,000 to 9,999	2,004	473	23.6%
10,000 to 99,999	1,794	230	12.8%
100,000 to 999,999	871	67	7.7%
1,000,000 to 9,999,999	298	7	2.3%
Over 10,000,000	85	0	0.0%
미확인	139	48	34.5%
총 계	6,681	1,648	24.7%

(출처: Whalen and SiMons 2012: 163)

- <표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언어 수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5. 국제기구의 노력: 유네스코

- 유네스코는 최근(1980년대 이후)에 세계 언어 다양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 1980년대에 유네스코는 언어 다양성(language diversity)이 곧 문화 다양성의 기본 개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함.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담당부서(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tion)가 사라질 위험에 처한 언어에 대한 보존 프로그램을 시작함으로써 소멸위기 언어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됨
- 1997년 유네스코는 구전되는 무형의 우수한 인류 유적에 대한 선언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통해 마스터피스 프로젝트(Masterpieces Project)를 시작함.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에 무형유산인 ‘언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한 정책 개발, 교육 프로젝트 등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기 시작함
 - 마스터피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제패널의 건의를 받아들여 언어를 유네스코 마스터피스 프로젝트에 포함시킴
 -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Cultural Diversity)¹⁾을 채택함으로써 언어 다양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언어 보존을 위한 실행 계획을 채택함
 - 일본 교토에서 열린 소멸위기 언어 국제학회에서 유네스코는 언어 다양성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인식을 공유함. 우선 태평양 연안에서 사라져가는 언어를 위한 첫 프로젝트를 진행함
- 소멸위기 언어 정책 등과 관련해서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중요한 시점으로 간주됨. 이 시기에 유네스코는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함. 구체적으로 유네스코는 언어학자들을 초청하여 언어 생명력/사용정도(language vitality)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음. 이들의 논의는 언어 자료화(documentation), 언어 유지(maintenance), 그리고 언어 활성화(revitalization)에 초점을 둠
- 2003년 유네스코는 네덜란드 유네스코 지부와 협력하여 소멸위기 언

-
- 1) 이 선언문에 따르면 회원 국가들에게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a. 인류의 언어 다양성을 유지하기와 가능한 많은 수의 언어로 표현하고, 전파하는 것을 지원하기;
 - b. 모든 방면의 교육에서 언어적 다양성을 권장하기, 가능한 어디서든지 아주 어릴 때부터 몇 가지 언어를 배우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 c. 적합하다면, 전통적인 교육론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데, 이때 언어의 보존과 관련한 견해, 의사소통과 지식전달에 있어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방법을 함께 사용하기; 사용자가 지역 사회 내, 사용할 의무가 없는 곳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다양성을 촉진하기, 또한 공공 영역에서 해당 언어 정보를 전 세계에 접속하는 것을 권장하기

어를 지켜나가기(Safeguarding of Endangered Languages) 위한 국제 전문가 모임을 조직함

- 이 모임에서는 언어학자, 비영리 단체, 그리고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소멸위기 언어 정책에 대해 유네스코의 역할과 임무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 모색
- 이 모임에서 논의된 사항은 1) 소멸위기 언어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소멸위기 언어 평가를 위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 2)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 현황 검토 3) 언어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 정의 4) 세계 언어와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고, 촉진시켜나가며 소멸위기 언어를 지켜나가기 위한 전략 제안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유네스코는 공식적으로 ‘언어 생명력 그리고 소멸(Language Vitality and Endangerment)이라는 문서를 채택하게 됨.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 교육자, 행정가들은 위협에 처한 언어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침서로 이 문서를 널리 활용하기 시작함
- 2003 국제 전문가 회의는 언어 보존을 위한 국제적 관심을 끌어 모았다는 점에서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주되고 있음. 이 회의에서 제시된 소멸위기 언어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9개의 요인은 다음과 같음

: language documentation (언어 자료화)

: pedagogical materials (교육 자료)

: the training of local linguists (지역 언어학자 육성)

: the training of language teachers (언어 교사 양성)

: new policy initiatives (새로운 정책 시행)

: public awareness-raising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

: technical, logistical and financial support (individual language specialists, NGOs, local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기술적, 물리적, 재정적 지원 (예를 들어, 개별언어 전문가, NGO단체, 지방정부, 국제기관 등)

- 2004/2005년: 2003년의 노력으로 유네스코는 소멸위기 언어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구 자금(funding)을 지원하기 시작함

6. 언어 다양성: 언어 자료화 및 활성화

1) 언어 다양성

(1) 언어 다양성: 소멸의 이유

- 토착 언어(Indigenous language)는 주로 소수 언어로 국가의 언어 정책에서 소외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지 못함. 결과적으로 토착어는 정치,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아 주변 언어로 밀려나 언어적 고립이 가속화 되고 있음
- 한 국가에서 주된 언어(dominant language)로 선택받지 못한 언어는 일반 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못함.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해당 언어에 대한 부정적(negative) 인식으로 이어지고, 언어적으로 낮은 지위(low status)를 갖게 되어 일반인들이 사용을 기피하게 됨
-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이중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에서 조차 자녀들에게는 주요 언어(majority language)를 가르치게 되어 소수 언어(minority language)는 사멸의 길로 접어들게 됨
- 20세기에 이르러 언어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음. 주된 이유로는 TV, 전화, 인터넷과 같은 매스 미디어의 발달, 소수 언어가 어린이 교육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소수 언어로 진행되던 다양한 풍습, 생활양식 등이 빈번한 언어 접촉을 통해 주요 언어로 대체되고 있음
- 언어 소멸은 곧 소수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이 사라지는 것을 초래하고, 소수 언어로 유지되던 인류 문화의 다양성(diversity)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음. 이에 대해 Hinton(1999)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전 세계적으로 언어 다양성의 감소는 세계 정치, 경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토착민들의 영역을 침범, 탈취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를 위협하고, 전통 생활방식을 파괴하며, 현재 그들이 소외계층으로 살고 있는 더 큰 사회에서 하층계급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음

(2) 언어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 언어 소멸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 정체성, 지식 체계의 사멸로 이어짐. 특히 지식 체계는 사고방식, 구전되는 전승 문화, 음악 전통, 환경과의 유대, 민간요법에 대한 이해, 그 밖의 예술 행위 및 중요한 문화적 관행을 포함함. 그러므로 소멸위기 언어를 보존하는 것은 문화 보존 및 다양성 확대에 직접 기여함
- 언어를 보존하는 것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 사용 지역의 정치, 경제적 자치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됨. 정치, 경제적 자율권은 곧 그들만의 터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는 곧 그들의 정체성(identity)유지와 긴밀한 연관을 갖게 됨
- 언어 다양성은 곧 삶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²⁾
- 언어 보존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정(self-determination)에 바탕을 두고 언어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Ladefoged (1992)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 토착어 사용 지역 사회 스스로가 언어 생존을 갈망하고 이를 향한 노력을 시작 할 때만 그러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성공할 수

2) - 언어 다양성과 환경 사안들 간의 공공 인식 확대

- 최고의 언어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에서 발견이 됨. 이러한 지역에 전 세계 인구의 대략 4%를 차지하는 토착민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이 지역의 언어를 적어도 60%말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를 통제하거나 잘 다룸. 생물 다양성과 언어 다양성은 같은 지리학적 지역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공통의 위협에 직면함. 생물학적 다양성과 언어학적 다양성의 공동 진화를 인정하건 하지 않건, 생물학적 멸종과 문화적/언어적 동질화를 야기하는 실질적인 힘이 비슷하다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움. 작은 지역사회가 직면하는 문제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됨. 이것은 매해 증가하는 소멸되는 언어의 수가 반증해 주고 있음 (King 2008: 13)

있음.

2) 언어 자료화

(1) 왜 언어 자료화를 해야 하는가?

- 유네스코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음
 - 언어 자료화는 인류의 지적 자원을 강화시켜나감
 - 언어 자료화는 현재의 지식으로 새로운 문화적 시각을 제시해 줌
 - 언어 자료화 과정은 언어 자료 보유자가 언어 문화적 지식을 재가동하게 도와 줌

(2) 언어 자료화란?

- 언어 자료화(documentation)는 단순한 보존(preservation/sustaining)과는 다른 개념임. 보존은 통조림과 같이 아무런 변화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인데 반해 언어 자료화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언어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 히브리어의 예에서와 같이 언어 자료화는 먼 훗날 부활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임³⁾
- 언어 자료화는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자료(사진, 다이어그램, 지도 등), 문어 자료(전사, 기술, 분석 등), 구어 자료에 대한 체계적 설명 등을 포괄함
- 언어 자료화는 다양한 기술 매체를 활용하여 한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다양한 양상을 수집(collecting), 녹음(recording), 분석(analyzing), 그리고 기록/보관 (archiving)하는 복합적 과정
- 언어 자료화는 각종 사전, 교육 교재, 언어 아카이브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특히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해당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를 가능하게 함

3) 보존은 병에 있는 딸기 그리고 캔에 있는 참치에 해당 하는 것임. 책과 녹음은 언어를 보존하게 역성적인 노력의 결과임.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지역 사회만이 언어 생존을 가능하게 함 (Romaine 2008: 11)

- 많은 경우 언어 자료화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자연적 구어 자료의 수집과 채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채록된 자료의 외형적 특징(예, 참가자, 환경, 성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언어 내적인 설명(예, 단어, 의미 등)을 포함함. 채집된 자료 자체에 대한 설명 자료를 '메타데이터'(metadata)라고 함
- 메타데이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함
 - 목록화(catalogue): 자료 제목, 화자, 수집자, 장소 및 시간, 자료를 수집하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술, 언어 이름 등
 -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술
 - 자료의 체계적 구성
 - 행정적 절차(administrative): 허가증, 자료 수집에 따른 언어 수집 동의서 등
- 언어 자료화에서는 사회 언어적 변인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언어 변인, 언어 정체성, 언어 접촉, 언어 정책, 문화적 변인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 될 수 있도록 언어 자료화가 진행되고 있음
- 사회 언어적 접근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자료화는 언어 사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survey), 언어 사용과 관련된 자세한 인터뷰(metalinguistic interview), 해당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류학적인 이해(ethnographic sketches) 등을 아우르고 있음
- 최근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언어 자료화를 더욱 용이하게 해 주고 있음. 하지만 단순한 저장보다는 일상의 언어 사용을 바탕으로 언어 내용을 기술하고, 기록하는 것이 참된 의미의 언어 자료화임
-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해 국제단체들이 언어 기록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몇 개의 사례를 제시하면
 - Anthropologists' Fund for urgent anthropological research(미국)
 - Fellowship in Urgent Anthropology(영국)
 - Arbeitsgruppe bedrohte Sprachen(독일)
 - The Endangered Languages Fund(미국)

- Foundation for Endangered Languages(영국)
-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Committee on Endangered Languages and their Preservation(CELP) (미국)
- Permanent International Committee of Linguists (네덜란드)
- World Federaton of the Deaf(프랑스)
- German Volkswagen Stiftung (독일)
- Smithsonian Institution (미국)
- SOAS(University of London) (영국)
- Ethnologue(Summer Institute of Language) (미국)
- UNESCO International Council for Philosophy and Humanistic Studies(CIPSH) (오스트레일리아)
- UNESCO World languages report and International Clearing House for Endangered Languages
-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3) 언어 활성화

(1) 언어 활성화란?

- Hinton(2008: 5)은 언어 활성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제공하고 있음. 언어 활성화는 언어소멸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 가능함
 - 언어 활성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역할이 중단된 언어를 재건하는 것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돌리는 것과 관련이 있음. 히브리어가 그 대표적인 예임
 - 활성화는 극단적인 상실이 아닐 때도 시작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아이리쉬어 또는 나바호어처럼 현재 아이들이 이들 언어를 모국어로 생각하고, 집에서도 의사소통이 해당 언어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두 언어 모두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언어 사회에서 활성화라는 것은 언어 사용 감소를 호전시키는 것을 의미함

(2) 언어 활성화 과정

- 언어 활성화는 언어가 소극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변화(shift)를 주는 과정이기도 함. Fishman(1991)은 언어 사용 뒤집기(reversing language shift)를 유도하기 위해, 즉 언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검토할 것을 제안. 순서적으로 단계가 제시되었지만, 몇 개의 단계가 중복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
- 1단계. 언어 평가와 계획: 한 사회에서 언어적 상황이 무엇인지 조사하라. 언어 사용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그들의 연령대는 어떠한가? 해당 언어와 관련된 재원은 무엇이 있는가? 언어 활성화에 대한 언어 사용자와 비언어 사용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 사회에서 언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목표는 무엇인가?
- 2단계. 만약 해당 언어 사용자가 없다면: 그 언어를 복원하고 언어 교육을 발달시켜 줄 수 있는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라.
- 3단계. 만약 해당 언어 사용자가 연장자뿐이라면: 연장자들의 언어를 문서화하라. 이것은 다른 단계와 함께 일어날 것이다.
- 4단계. 성인을 위한 제2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예, 마스터-견습생 프로그램).
- 5단계. 모국어 사용자 그리고 제2언어 사용자들이 집과 공공장소에서 위협에 처한 언어 사용을 지지하고 촉진 할 수 있게 해 주는 문화 전통을 재개발하고 홍보해라.
- 6단계. 어린이들을 위한 제2언어 집중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편성되면 더 좋다. 가능하다면 위협에 처한 언어를 교육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라.
- 7단계. 가정의 의사소통에서 위협에 처한 언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언어가 어린이들의 모국어가 된다. 부모들의 이해과정을 도와주기 위한 강의 등을 통해 지지그룹을 개발하라.
- 8단계. 지역 정부, 미디어, 지역 상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 활동 분야에서 토착 언어의 사용을 확대하라.

- 9단계. 장소가 허락한다면 해당 언어 사용 분야를 지역사회 밖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인구가 사용하게 하여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 지역을 확대해라. 더 나아가 지역 또는 국가 정부의 언어로 홍보하도록 해라.
- 언어 활성화의 출발점은 어떻게 언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데 달려 있음. 이러한 이유로 소멸위기 언어 연구에서 언어 채록과 기록이 활성화보다 더 강조되고 비중 있게 다뤄짐. 서로 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활성화 프로그램은 언어 자료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줌
- 보다 과학적인 접근으로 언어 채록이 이루어져야 하며,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함. 예를 들어, 스미쏘니언 연구소는 Harrington의 광대한 자료를 2001년 오디오로 전환하였음
- 최근 디지털 녹음 기술의 발달과 함께 녹음 내용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고 이러한 자료들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음
- 특히 농담, 감사표현, 사과 표현 등은 신체적 표현을 수반하기 때문에 언어채록 과정에서 시각적 자료 확보가 중요함

(3) 언어 활성화 프로그램의 예

(3.1) 학교 정규과정을 통해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소수 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우선 전통적인 주제와 가치를 다루어야 함. 이러한 이유로 수업 환경이 전통을 담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함. 예를 들어, 명절과 같은 전통 문화 전승 과정 등을 통해 수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가정과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됨
- 널리 운영되는 학교 프로그램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소멸위기 언어를 정규 교과 과정의 한 형태로 포함하는 경우 (장점-

젊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소수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모든 학생들이 언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학생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자랑스러워하고 약간의 대화를 통해 언어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됨
단점 - 언어 습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또한 대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

- 이중 언어(bilingual)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소멸위기 언어 교육 (예를 들어, 미국 인디언 이중 언어 교육법(Title VII)에 따라 많은 인디언 언어들이 이중 언어 과목으로 제공되고 있음.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해 표기법(writing system)이 개발되고 학습교재가 개발됨. 이를 위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인디언 언어에 새로운 어휘가 도입되기도 함. 단점으로는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한 자금 지원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불안정한 교사 양성, 그리고 정치가들에 의한 부정적 시각 등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이중 언어 교육법 자체가 인디언 언어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인디언 언어 교육을 위한 충분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없음. 그리고 이중 언어 교육은 가정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몰입(immersion) 프로그램을 통한 소멸위기 언어 몰입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아울러 몰입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이외에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새로운 어휘 및 담화 스타일을 개발함으로써 현 상황에 알맞은 언어교육 환경을 개발하고 언어 변화를 수용하여야 함. 소수 언어 몰입교육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부모와 지역 사회의 거부감을 들 수 있는데, 지역사회와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는 몰입교육 성공의 열쇠가 됨. 특히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몰입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은 해당 언어 유지(language maintenance)에 유용함

(3.2) 학교 정규과정 이외 프로그램: 방과 후 학교, 여름학교 등

- 미국의 경우 방과 후 프로그램은 인디언 언어 프로그램보다는 이민자를 위한 언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음
- 인기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여름 집중 강좌는 가족과 학교에서 소수 언어 사용으로 진행되고 유지되어야 함

(3.3)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 많은 경우 성인을 위한 교육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통 저녁에 이루어짐. 지역사회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은 실제로 요리, 전통 놀이 등 활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소수 언어를 직접 사용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몰입교육 효과가 있음
-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도제언어교육(Master-Apprentice Language Learning)은 소멸위기에 처한 인디언 언어 부활을 위한 대표적인 언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당 언어에 유창한 사람들과 학습자들을 1:1(혹은 3~4명)로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음

(3.4) 가정과 지역 사회 연계

- 소수 언어가 집에서 사용되는 것은 부모의 결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사회적 환경과 태도 그리고 자녀들의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하여 소수 언어를 집에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 소수 언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집과 지역 사회에서 언어가 널리 사용되어야 함

(4) 언어 활성화를 위한 고려 사항

- 언어는 시간과 시대에 따라 변화해 나감. 이전과 다른 변이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 언어 사용의 활성화 및 교육을 위해 어느 변이형을 표준으로 정할 것 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지역 및 특정 영역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가 언어 활성화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됨
-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수학, 과학, 컴퓨터 등 새로운 분야가 도입되면서 이전에 소수 언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어휘들이 나타나게 됨. 이들을 어떻게 도입하고 취급할 것인가가 또한 언어 활성화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 하와이어의 경우 새로운 어휘를 결정하기 위한 어휘 위원회(Lexicon Committee)가 존재함. 히브리어는 원래 신성한 곳에서 사용되는 언어였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 많은 작업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됨
- 성공적으로 언어 활성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Hinton(2008: 16-17)은 끈질긴 인내(persistence),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솔직한 판단(honest)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끈질긴 인내(persistence): 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을 성취할 때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야함. 예를 들어, 하와이에서도 처음에는 몰입교육이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하와이어 몰입교육을 이루어 냈음. 언어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지역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 냉소적인 비판 등과 같은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함
 - 지속성(sustainability): 향후 지속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만들어내야 함.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 실질적으로 소수 언어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하는가?
 - : 언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 현재의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 사회에도 파급될 수 있는가?
 - : 어떻게 지속적으로 자금지원(funding)을 받을 수 있는가?
 - 솔직한 판단(honest):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은 언어 활성화를 위해 중요함. 학습자들은 그들의 능력만큼 언어를 잘 배우고 있는지? 개발된 자료는 정말로 유용한지? 어떻게 프로그램이 향상될 것인지? 일부 결정은 폐기되어야 하는지? 새로운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솔직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7. 언어 부활의 사례: 히브리어

- 히브리어는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부활되어 이스라엘의 공식어가 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
- 또한 하와이어와 마오리어는 몰입교육을 통해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음. 2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첫 교육 세대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여 언어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초기 몰입교육의 성공은 언어 보존 및 언어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큼
- 히브리어는 사멸(extinction)에서 부활(revival)을 경험한 유일한 언어로 언어 연구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여러 학자들이 부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그 예는 다음과 같음
- Sivan (1980)의 연구
 - 수 세기 동안 망명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귀환
 - 성경에 바탕을 둔 생생한 히브리어의 전통 계승
 - Ben-Yehuda에 의해 시작된 히브리어 부흥을 위한 철저한 정신 준비 과정을 거침
 - 큰 어려움 없이 어휘를 다소 쉽게 확대할 수 있는 히브리어의 문법 구조
 - 새롭게 건설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주하는 지역 사람들이 새로운 어휘(언어)에 대한 필요성 대두
- Shur(1990)의 연구는 히브리어의 재활을 정치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음. 즉 자이온이즘(Zionism)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국가 설립에 히브리어가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분석됨

○ Harshav(1993)의 연구는 세 개의 복잡한 역사적 관점에서 히브리어의 부흥을 설명하고 있음

- 여러 측면에서 볼 때(예, 기록 문서들의 존재) 재할 당시 히브리어는 여전히 건강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19~20세기 현대 소설, 시 쓰기, 번역, 저널리즘, 에세이, 그리고 대중 과학 등을 기술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문어 히브리어(written Hebrew)의 부활
- 사막에 새롭게 건설된 나라에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생명력(social cell) 확립의 필요성

○ 이들 학자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히브리어의 부활은 철저한 언어 기록, 지역 사회의 노력, 정체성 형성을 위한 사람들의 인식 제고 등 오랜 세월 다양한 준비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음

8. 제주어 현황

○ 여기서는 현재 제주어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제주어 보존과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교재를 개발하고, 개별 학교에서 교사들이 재량으로 수업 중 또는 방과 후에 제주어 수업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제주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민 단체 및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제주어 강좌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제주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학교 특별 활동 시간을 통해 교사들

의 도움을 받아 제주어 클럽 등을 만들어 자체 활동을 전개함

○ 정책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제주어 정책을 수립하는 등 행정 기관에서 제주어 보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비록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에게 아직은 쉽게 다가가고 있지 않지만, 정책 당국의 관심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2007년 제주어 전승을 위해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가 제정됨
- 제주발전연구원 등에 제주학연구소를 설치하여 꾸준한 제주어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됨

○ 전문가들의 활동

- 제주어의 언어적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제주어의 언어학적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음
- 개별 연구자들이 음성 자료 채집을 통해 제주어의 기초 자료화를 시도하고 있음
- 제주어 사전 발간, 제주어 이해를 위한 기본 서적 발간 등을 통해 저술활동에 힘쓰고 있음

○ 민간단체의 활동

- 제주어 보존을 위해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임. 예를 들어, 제주어보존회는 제주어 보존을 위해 일하고 있는 NGO단체로 제주어 교사 양성, 말하기 대회 개최 등을 통해 도민 의식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 그 밖에도 제주어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제주어 연구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 언론 매체 및 미디어 활동

- 제주 지역 언론 매체(TV, 라디오, 인터넷)에서 제주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있음. 프로그램은 대부분 짧은 시간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어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역 신문에서도 다양한 소재를 제주어가 다루고 있는데, 설화, 소설, 개인 의견, 칼럼 등이 제주어로 소개되고 있음.

Ⅲ. 소멸위기 언어 사례 분석

1. 분석 언어 선정

-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륙별로 많은 언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본 연구는 각 대륙 별(아프리카를 제외)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한 정책, 교육 등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제주어 보존을 위한 실천적 방안 및 시사점을 찾고자 함
- 대륙 별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언어는 오랜 역사 동안 부침을 거듭해왔고 현재 소멸위기에 직면하였음. 하지만 해당 지역사회에서 언어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사례 조사를 위해 선정된 소멸위기 언어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고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외국의 사례 탐구는 제주어 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생활에서 제주어를 널리 사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

2. 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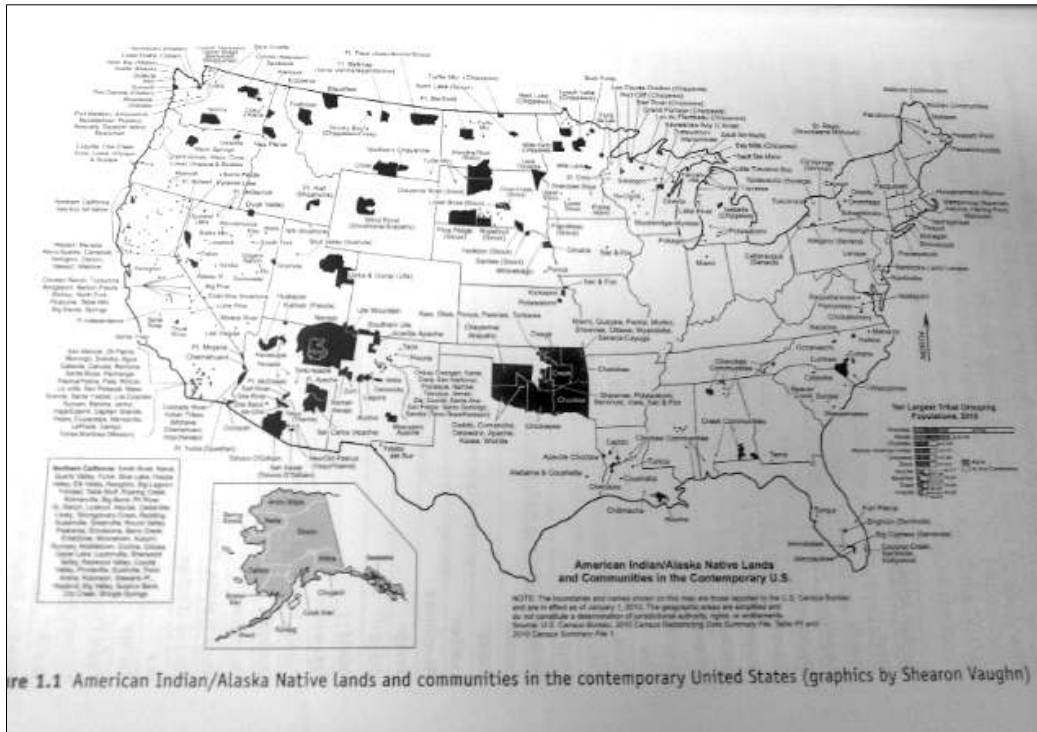
- 사례 조사는 크게 문헌 검토와 현장 방문 및 세미나 참석을 통해 이루어 졌음
 - 문헌 검토: 마오리어, 카탈란어
 - 문헌 검토 및 사용자 면담: 아이리쉬어
 - 현장 방문 및 인터뷰: 인디언 언어, 오키나와어

3. 미국 인디언 언어(American Indian Languages)

1) 현황

- 1492년 콜럼버스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 대륙에 거주하는 인디언의 수는 적게는 900,000에서 많게는 12,000,000 정도로 추산됨
- 유럽인들의 유입으로 인디언들은 많은 병과 대학살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냄. 다음 지도는 인디언 거주지를 개략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음

<그림 III-6> 미국 인디언 언어 분포



<그림 III-7> 미국 인디언 부족 분포



- 2012년 미국인구 통계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포함)은 전체 인구의 1.7%인 52,000,000 조사됨. 하와이와 태평양 연안에 거주하는 원주민은 전체 인구의 0.4%인 12,000,000으로 조사됨
- 연방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인디언 부족의 수는 565개 정도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617개의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음. 인구수가 많은 부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III-6>과 같음

<표 III-6> 미국 대표 인디언 별 언어 화자 분포

부족	미국인디언(알래스카포함)이 숫자(한 부족에만 속함)	미국인디언(알래스카포함)이 숫자(하나이상 부족에 속함)
Alaskan Athabaskan	15,623	22,484
Aleut	11,920	19,282
Apache	63,193	111,810
Arapaho	8,014	10,861
Blackfeet	27,279	105,304
Cherokee	284,247	819,105

부 족	미국인디언(알래스카포함)이 숫자(한 부족에만 속함)	미국인디언(알래스카포함)이 숫자(하나이상 부족에 속함)
Cheyenne	11,375	19,051
Chickasaw	27,973	52,278
Chippewa	112,757	170,742
Choctaw	103,910	195,764
Cree	2,211	7,983
Creek	48,352	89,332
Crow	10,332	15,203
Hopi	12,580	18,327
Iroquois	40,570	81,002
Inupiat	24,859	33,360
Kiowa	9,437	13,787
Lumbee	62,306	73,691
Menominee	8,374	11,133
Navajo	286,731	332,129
Osage	8,938	18,576
Paiute	9,340	13,767
Potawatami	20,412	33,771
Pueblo(non-Hopi Pueblos)	49,695	62,540
Seminole	14,080	31,971
Shoshone	7,852	13,002
S i o u x (L a k o t a , Dakota)	112,176	170,110
Tohono O'odham	19,522	23,478
Ute	7,435	11,491
Yakima	8,786	11,527
Yaqui(Yoeme)	21,679	32,595
Yuman(multiple tribal groups)	7,727	10,089
Yup'ik	28,927	33,889
명시되지 않은 부족 수	693,709	1,545,963

2) 거주 환경

- 경제적으로 일반 미국인들에 비해 그 환경이 열악함. 인디언 인구의 1/4정도가 연방정부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와 비교해 볼 때 2배 정도가 많은 것임
- 인디언들은 시골 혹은 원래 거주 지역에 살고 있지만 현재 과반 이상이 이들 밖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3) 인디언 언어 개관

-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존재하는 어족(language family)은 60개 정도이며 실제 사용되는 언어는 300-600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됨. 언어 수에서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유럽인이 이주한 이래 빈번한 접촉 과정에서 언어 변이형이가 생겨나게 되었고, 한편으로 이미 소멸된 언어들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음
- Krauss(1998)의 조사에 따르면 20세기 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디언 언어는 미국과 캐나다를 합쳐 210개 정도이며, 이 중 미국에서는 175개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Siebens & Julian(2011)에 따르면, 하와이와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제외하고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인디언 언어는 169개로 조사되었다고 함
- 많은 인디언 부족에서는 몰입교육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만들어 후손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주변의 대학에서는 해당 인디언 언어 코스를 개설하고 심지어는 석사 이상의 과정을 개설하기도 함. 지역사회에서 세워진 커뮤니티 칼리지(전문대학 성격)에서는 해당 인디언 언어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좌도 운영되고 있음
- 최근에는 미국 사회에서 사라지는 인디언 언어의 정체성을 찾고 뿌리 찾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취학 이전의 아동들에게 해당 인디언 언어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초기 집중 몰입교육이 많이 시도되고 있음. 이러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대학교(예, 버클리대) 혹은 인디언 연구소(예, 토착 언어 연구소, Indigenous Language

Institute) 등에서 정기적 교사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여 언어 지도에 대한 실질적 방법을 널리 전파하고 있기에 가능함

4) 사례 탐구 I : 캘리포니아 인디언 언어

(1) 캘리포니아 인디언 이해

- 많은 인디언 부족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인디언 언어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알려짐
-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인디언 언어에 대한 연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최근 각 인디언 사회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교육하고 널리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일찍부터 캘리포니아(버클리) 대학에 인디언 연구센터가 설립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각 인디언 부족 내에서도 자신들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대됨
- 인디언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와 부족들 간의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원활한 인디언 언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캘리포니아 인디언 언어 교육의 성공 사례로 알려진 도제 교육 제도(Master-Apprentice Program)는 미국 전역에서 인디언 언어 교육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2) 캘리포니아 인디언 (언어)에 영향을 미친 사건 개요

- 서부 개척 골드러시 시대와 캘리포니아가 미국에 병합되면서 캘리포니아 인디언 인구가 90% 정도 급감함(310,000명 → 20,000명)
- 캘리포니아 인디언의 수가 급감한 이유로는 1) 외부 인구 유입에 따른 새로운 병이 창궐 2) 이에 광부와 농부가 완전히 사라짐 (특히 1845-1855) 3) 인디언 어린이와 여성을 납치하거나 노예로 팔아넘겨 버림(법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인정함)
- 1870년대 이전까지는 인디언 보호 구역이 설치되었지만 관리들의 부

패 등으로 인디언들은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었음

- 1870년대 이후에 인디언 생존자들은 보호구역에 정착하기 시작하여 1800년대가 끝날 무렵 인디언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이 당시 인디언들은 토지와 그 밖의 어떠한 재산도 거의 소유하지 못함
-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디언 부족과 연방 정부 간에 인디언 보호를 위한 협약이 맺어짐(80개 정도의 협약). 하지만 이들 협약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 연방의회에서 비준된 사례가 없다고 보고됨
- 1880년대 보딩 스쿨(boarding school)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20세기까지 이어짐. 보딩 스쿨은 강제로 인디언 어린이들을 가족에서 분리하여 교육시킴으로써 인디언의 전통과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의도적인 정책이었음
- 이러한 보딩 스쿨은 인디언을 학대하고 차별하는 곳으로 보고됨
- 60년대 까지 이어진 차별 정책으로 현재에도 인디언 커뮤니티 내에서 자립 경제가 힘들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함
- 라디오, TV와 같은 현대 기술, 의사소통 수단의 발전은 지속적인 영어와의 접촉을 강화시켜나가고 있어 현재 캘리포니아 인디언은 영어 몰입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

(3) 캘리포니아 인디언 언어 현황

- 캘리포니아에는 적어도 98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들 언어는 1) 유창한 화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언어(45개 혹은 그 이상), 2) 1-5명 정도의 화자가 존재하는 언어(17개 정도), 3) 오직 나이가 드신 어르신 화자만 존재하는 언어(36개 정도)로 분류됨
- 현재 이들 언어 중 어느 하나도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 어르신 화자들은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했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1970/8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도입된 다양한 이중 언어/문화 교육 (bilingual/bicultural education) 프로그램은 각 부족 언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시작함. 특히 각 부족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 전통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대하고 있음

(4) 캘리포니아 인디언 언어에 대한 태도 및 교육

4.1) 20세기 초반

- 앞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인디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차별을 경험한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이 같은 아픔을 겪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디언 언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도록 자녀들을 지도함
- 아울러 인디언 언어를 사용할 환경의 부재, 언어 기능 상실(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표현을 선택해야 할지를 모름), 널리 쓰이고 있는 영어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인디언 언어를 가르치고 싶어도 교육하기가 쉽지 않음
- 인디언 언어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초기 학자들이 언어 자료 및 환경을 기록하여 자료화(documentation)한 것은 최근 인디언 언어 부활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있음.

4.2) 20세기 후반

- 미국에서 다양한 인종의 정착, 인종 차별 철폐, 시민운동(Civil Right movement)의 확대는 소수 언어 교육의 확대를 가져옴. 이에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한 법률제정, 인디언 언어 교육 법령 도입 등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함
- 사회 환경의 변화는 (캘리포니아) 인디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함
- 보호구역 내에서 인디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전통 의식(제

사, 음식 준비, 예술 활동 등)에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함

- 1970/80년대 이중 언어/문화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그들 자신의 인디언 언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을 줌
- 학회, 세미나 등을 통한 인디언 부족들 간의 정보 교환은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 보존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함
- 일부 행정구역(예, Humboldt County)에서는 인디언 이중 언어 교육 (Indian bilingual education)을 20년 이상 실시해 오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인디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자신들의 언어 사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언어 활성화를 이끌고 있음

(5) 캘리포니아 인디언 언어 연구 자금 지원

- 1970년대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인디언 언어 프로그램의 시초가 됨
- 캘리포니아에 많은 인디언 부족이 존재하고, 각 부족 언어의 상실 정도가 다른 이유 등으로 소수 부족만이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 1990년에 접어들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디언 언어/문화 보존을 위한 법령(예, Native American Languages Act)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행정 기구(예, Administration for Native Americans (ANA))가 등장하여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인디언 언어/문화 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감
- 아울러 사립 단체(예, 기업체) 등에서도 소수 언어 보호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함. 이들 단체들도 언어 보존을 위한 재정 지원을 시작함. 이러한 지원은 소수 인디언 언어의 보존을 위한 자료 수집과 언어사용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음

(6) 캘리포니아 인디언 네트워크

6.1) 인디언 소식지(저널) 설립

- 1987년 한 출판사(Malcolm Margolin of Heyday Books)에서 인디언의 다양한 활동(모임, 전통행사, 전시회 등)을 소개하는 *News from Native California*라는 저널을 발간하기 시작함
- 이 저널은 전통 문화 의식, 관련 법령,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소식을 전달함. 이 저널을 통해 타 인디언 부족의 소식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언어 사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게 됨

6.2) 인디언 네트워크 결성

- 1992년 Native California Network(NCN)이 결성되어 캘리포니아 전통 문화, 언어 등을 연구하려는 개인 혹은 커뮤니티에 자금을 제공함
- 이 기관은 전통 문화 부흥을 위해 언어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여, 이를 실제 운영함으로써 언어 연구의 중요성을 확대시켜 나감

6.3) 학회 모임과 워크숍

- NCN와 *News from Native California*가 공동으로 제1회 언어 보존에 대한 모임을 개최함. 이 모임은 *News from Native California*에 등록되어 있는 60개 인디언 언어 대표들이 참석하여 일상생활 언어 사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 이는 최초의 인디언 언어에 대한 모임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공공의 장이 됨. 첫 번째 모임 후 지속적으로 매 2년 마다 모임을 개최하고 있음
- 이 모임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개선되고, 캘리포니아 인디언 언어 부흥 위한 위원회(Advocates for Indigenous California Language Survival(AICLS))를 결성하게 되었음. 이 위원회는 7개의 부족 대표가 참여하여 언어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조언을 하고 NCN에게 자문 역할을 수행함
- 특히 이 모임을 통해 각 부족 간의 언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언어 프로그램 대표를 초대하여 성공 사례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함
- 1995년 워크숍을 결성함. 첫 워크숍 'Circle of Voices'에서는 나이든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문화, 전통을 비디오에 녹음하고 이를 서로가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1996년 워크숍 ‘Breath of Life, Silent No More’이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에서 개최됨. 20개 인디언 대표가 참여하였고 학자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언어 녹음 자료를 소개하였고, 읽기를 위한 기초 음성 자료 소개, 기초 언어 분석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언어 활성화(language revitalization)에 기여함

6.4) 인디언 언어 교육

- 캘리포니아 인디언 언어 활성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성공적인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음.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의 인디언 언어 연구 전문가인 Hinton 교수가 개발한 도제교육제도(Master-Apprentice Program)를 통해 언어 교육 및 전승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 이 도제교육제도는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나이든 어르신과 그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가 서로 밀착해서 언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전역에서 인디언 언어 교육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 프로그램임
- 최근 학교에 취학하기 이전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인디언 언어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의 많은 것을 학습해 나가는 조기 인디언 몰입교육 실시 및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디언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언어 사용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언어 교육이 확대되고 있음

(7) 그 밖의 커뮤니티의 노력

7.1) 언어 표기법

- 여러 인디언 커뮤니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언어 표기법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여 인디언 언어를 표기를 시도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개인이 노력하여 표기법을 개발하고, 개발된 표기법을 해당 인디언 커뮤니티 대표 회의에 발표함. 대표 회의에서 승인을 얻으면 공식적 표기법으로 인정됨

7.2) 구어, 문어 자료 개발

- 언어학자들과 협력하여 실용 사전, 교육용 문법 등을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인디언 언어 체계를 정리해 나감
- 학교에서는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 이러한 논의 과정에 언어학자들이 컨설팅에 참여함
- 최첨단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인디언 언어 사용 현장을 기록하고 기록된 영상 자료 등을 언어 교육에 활용하고 있음
- 최근 일부 인디언 커뮤니티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개발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언어 전승 교육에 이용하고 있음

7.3) 언어 교육

- 1970년대 이래로 다양한 언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규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성인들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야간 수업 등이 존재함
- 언어 강사는 주로 인디언 언어에 능숙한 사람들이 담당하는데, 이들은 인디언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 사람과 공동 강의를 진행함. 언어학자들이 수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함
- 인디언 커뮤니티 내에서는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모임들이 기획됨. 예를 들어, 전통 놀이 대회에서 인디언 언어만을 사용하여 실제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줌
- 커뮤니티 중심의 몰입 언어 캠프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진행됨. 실제 언어가 사용되는 전통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언어 학습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인디언

언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7.4) 공식 모임에서 인디언 언어 사용

- 일부 인디언 커뮤니티에서는 공식적인 모임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함. 인디언 자체 의결기구에서 투표를 위한 ‘예’, ‘아니오’를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함
- 인디언 부족 간에 모임이 있는 경우, 처음 시작 할 때 자신들의 언어로 서로를 소개함. 의식 등에서 어르신들은 축복의 메시지를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 함. 특히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처음 인사 등은 자신들의 언어로 진행함. 단순히 단어에서 복잡한 문장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메시지를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함

(7) 캘리포니아 인디언 언어 활성화

- 공립학교에서 인디언 언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하고 있음. 훔볼트(Humbolt) 카운티에서는 많은 인디언 인구를 갖고 있는 지역의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인디언 언어를 졸업을 위한 제2외국어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함. 토로와(Tolowa), 후파(Hupa), 카루크(Karuk), 그리고 유로크(Yurok) 등과 같은 언어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제2언어로 인정받고 있음
- 다양한 워크숍: 캘리포니아 인디언 언어 회복(California Indian Language Restoration Workshop)을 위해 버클리 대학교가 ‘Breath of Life’, ‘Silent No More’라는 워크숍을 개최함. 일주일 이상 지속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언어 자료를 수집하는지(documentation), 어떻게 언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지(revitalization)를 인디언 참여자들에게 교육함
- 민, 학 협동 연구: 버클리 대학에서는 캘리포니아 인디언 언어 자료 모음(California Indian Libraries Collections) 및 인류학 자료들을 아카이브(archives)에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된 자료를 해당 인근 인디언 지역사회 도서관 등에 자료를 이관해 줌. 자료는 주로 마이크로 필름(microfilm) 형태로 이관됨으로써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음성 자료는 오디오 테잎으로 변환되어 제공되고 있음

- 이중 언어 교육: 연방 정부의 언어 교육 프로그램 속에는 인디언 언어 전승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영어와 해당 인디언 언어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함
- 지역사회 노력: 미국 전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학술교류 모임 등에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언어 보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5) 사례 탐구 II : 토착 언어 연구소(Indigenous Language Institute) 주최 세미나

- 워크숍 주제:
어린 학습자들을 위한 언어 몰입교육 계획 방법과 조기교육 프로그램 (Language Immersion Planning and Methodology for Early Childhood and Head Start Programs)
- 주최: 토착 언어 연구소(Indigenous Language Institute)
토착 언어 단체 연합(Consortium of Indigenous Language Organizations (CILO))
- 참가자: 미국 전역에서 인디언 대표들이 참여함. 한 부족에서 4-5명 정도가 그룹으로 참여함. 중장년층과 젊은 층이 같이 그룹을 이루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자신들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 교사들로 구성됨. 또한 이 워크숍은 참여한 인디언 부족 대표자들이 서로 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함
- 수업 내용:
 - 전문 강사는 취학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 방법론과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모델 수업을 제공함
 - 모델 수업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그룹을 만들고, 그룹 속에서 모

의 수업을 진행하여 어떻게 자신들의 언어 상황에 적용할 것인지 토론을 진행함.

- 토론을 바탕으로 직접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업 시연을 진행함으로써 언어 전승을 위해 자신들 부족에 적합한 수업 모델을 개발해 봄
- 다음은 워크숍에서 운영되었던 프로그램 스케줄로 향후 제주어 교육 워크숍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WORKSHOP SCHEDULE

April 15-17, 2013

Presented by the Consortium of Indigenous Language Organizations at
Desert Diamond Resort, Tuscon, AZ

Language Immersion Planning and Methodology For Early Childhood and Head Start Programs

PRE-REGISTRATION (April 14, Sunday)

19:00 - 20:00 PM Pre-Registration in front of **Conference Room A**

Day One (April 15)

07:30 - 08:30 AM **REGISTRATION** in front of Conference Area
Coffee/Tea served

08:30 - 09:00 AM Introductions/Overview of the Workshop by Inee
Slaughter, (Indigenous Language Institute)

09:00 - 10:30 AM Intergenerational Trauma and Science of Early Childhood
(Video)

Group discussion: What Is Our Role and Responsibility in
Building Empowerment?

10:30 - 10:45 AM Break

10:45 - 12:00 AM Early Childhood Second Language Learners: Know Your

	Learners and Building Experiences, Interactions and Confid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ve Domains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 Developmental Milestones For Your Child's First Five Years ● Language Development ● Scheduling ● How is your language class/program set up?
12:00 - 13:00 PM	Lunch Break (on own)
13:00 - 14:30 PM	Why Immersion? History of Immersion Methods and Effectiveness in Language Revitalization
The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erience by Doing: Demonstration of Early Childhood Immersion ● What Not to Do: Demonstration and Group Discussion
14:30 - 14:45 PM	Break
14:15 - 16:30 PM	What to Prepare for Immersion for Early Childhood & Head Start: Space, Curriculum, Lesson Plans, Teacher Trai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mersion Strategies - Modeling immersion instructions i.e. TPR/TPR ● Storytelling, Song, using the Environment, etc ● Planning lessons and practice/demonstrate lessons

Day Two (April 16)

08:30 - 09:00 AM	Greetings & Announcements
09:00 - 10:30 AM	Culturally Responsive Curriculum - Overview of Indigenous Models
10:30 - 10:45 AM	Break
10:45 - 12:00 AM	Indigenizing Your Curriculum and Lessons: Examples and Demonstration
12:00 - 13:00 PM	Lunch Break (on own)
13:00 - 14:30 PM	Preparing All Stakeholders (Break into Grou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p Work - Culturally Responsive Curriculum Brainstorming Session ● Group Work - Putting Brainstorming Ideas into a Curriculum Model ● Share curriculum model generated

14:30 - 14:45 PM	Break
14:45 - 16:00 PM	<p>Group Work - Use the Curriculum Model to Design an Early Childhood/Head Start Language Immersion (group)</p> <p>Consider the assessment of the community's status of language use and attitudes toward developing the Early Childhood/Head Start language learning.</p> <p>Information gathered from these discussions will determine most o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domains fit (culturally) in the curriculum? ● How does the curriculum build experiences, interactions, and confidence? ● Who will teach or be a cultural resource? ● Theme/s for the language activities/teachings; daily interactions to communicate with fluent speakers, restore identity/kinship, learning a traditional game, song, dance, ceremony, building respect, etc ● Preparing lessons for the activities - contemporary to traditional ways ● Setting the environment - Inside/outside ● Schedule and Planning/Logistics i.e. time, activities, lunch, snack, etc
16:00 - 16:30 PM	Reflections of the Day

Day Three (April 17)

8:30 - 9:00 AM	Greetings & Announcements
9:00 - 10:30 AM	<p>Immersion Methods - Mini lesson (Andrea)</p> <p>Discussion, questions, etc</p>
10:30 - 10:45 AM	Break
10:45 - 12:00 AM	<p>Present and Share Curriculum Methods and Immersion Less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monstration by Individuals/Groups to Entire Group
12:00 - 1:00 PM	Lunch Break (on own)
13:00 - 14:30 PM	Continue Group Sharing of Curriculum Methods and Immersion Lessons

- 14:30 - 14:45 PM Break
- 14:45 - 16:00 PM Continue Group Sharing of Curriculum Methods and Immersion Lessons
- 16:00 - 16:30 PM Feedback, reflections, turn in evaluation forms, Closing

○ 수업 내용의 실제: 수업을 통해 이루어진 각 인디언 언어별 수업 계획의 예
 <그림 III- 8> 세미나를 통한 수업지도안 개발 사례



○ 웹사이트를 통해 본 미국의 원주민 언어 교육 프로그램

<http://www.ilinative.org/share/programDirectory/programDirectory.xml>

4. 아이리쉬어(Irish)

1) 지리-언어적 개관

(1) 아일랜드 소개

- 아일랜드(Ireland)는 영국의 서쪽에 위치한 섬나라로 크게 남부와 북부 아일랜드로 나뉜다. 남부는 현재 아일랜드 공화국 그리고 북부는 현재 영국령으로 남부 아일랜드와는 다른 국가 체계를 이루고 있음

- 인구: 아일랜드 공화국(4백60만), 영국령 북부 아일랜드(1백80만)
- 역사적으로 아일랜드는 주변 국가의 침략으로 외세의 지배를 주로 받다가 1922년 독립국가로 출발하게 되었음

<그림 III-9> 아일랜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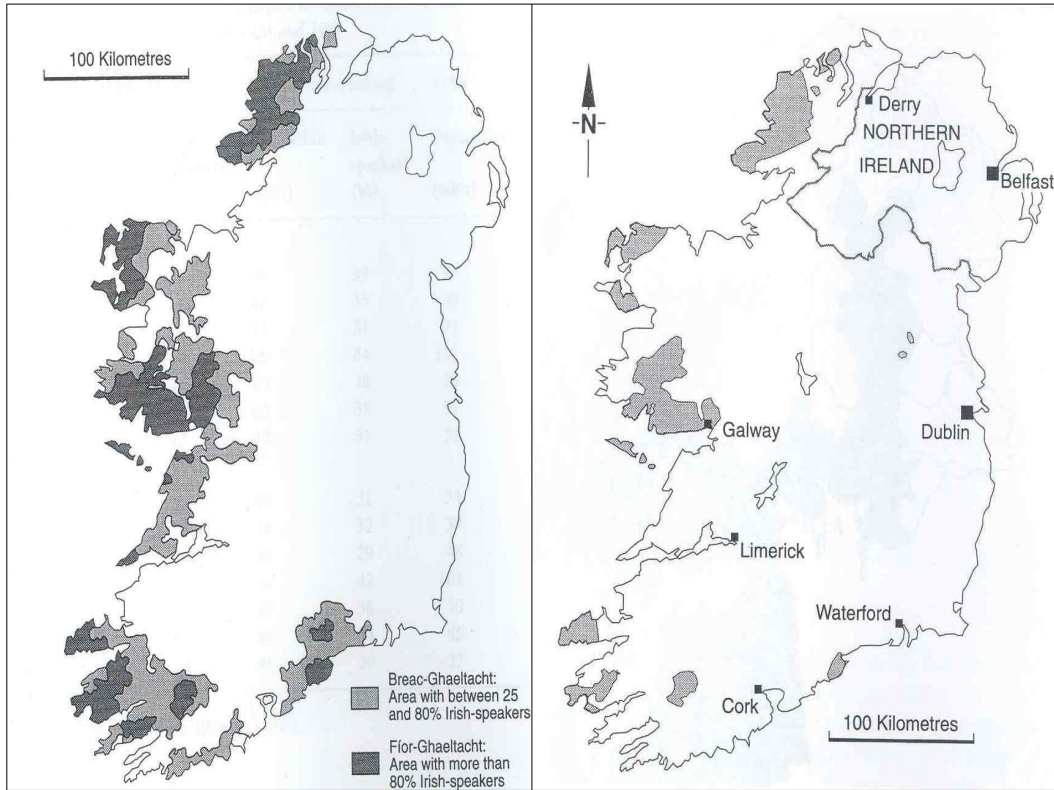


(2) 아일랜드의 언어적 상황

- 아이리쉬어(Irish)는 아일랜드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주로 남부 아일랜드(현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사용되고, 현재 법적으로 아일랜드 공화국의 공식어(official language)이자 모국어(national language)임
- 지리적으로 북부에 위치한 북아일랜드(현 영국)에서는 아이리쉬어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음. 하지만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아이리쉬어 집중 사용 거주 지역을 설정하는 등 언어 사용에 노력하고 있음
- 아이리쉬어는 대다수의 아일랜드 사람들에 의해 제2언어로 학습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제1언어로 사용되고 있음. 현재 유럽연합(EU) 등에서 공식 언어로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음
- 언어로서 아이리쉬어는 선사시대 이후 아일랜드에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영국, 심지어 유럽의 일부에서까지 이 언어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기록됨. 최초로 4세기 기록에 아이리쉬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 18세기부터 아일랜드의 동부지방에서부터 아이리쉬어가 서서히 약화됨. 영국의 침략 이후 영국정부는 교육, 입법, 행정 등에서 아이리쉬어의 사용을 억제하였음
- 18세기 중반 이후 영어 사용이 널리 퍼져, 영어는 정부 및 종교 의식 등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여 아이리쉬어는 상대적으로 힘을 잃고 심지어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기도 하였음
- 19세기 대기근(Great Famine) 동안 인구의 20-25%가 감소하였으며, 이 와중에 아이리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감소함. 시골, 외딴 지역을 제외하고 아이리쉬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음
- 하지만 1800년대는 아일랜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이리쉬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음. 한편, 이 당시 북부 아일랜드의 벨페스트(Belfast)에도 아이리쉬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음
- 아이리쉬어를 사용하는 특정지역을 겔타트(Gaeltacht)라고 지칭함. 지역적 의미에서 출발한 이 명칭은 아이리쉬어를 사용하는 사람, 혹은 아이리쉬라는 언어를 통칭하는 보다 광의적 의미로 사용됨
- 아일랜드가 독립한 후 아이리쉬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아이리쉬어 보존을 위한 특별 위원회(Coimisiun na 겔타트(Gaeltacht))가 1925년 설치되었음. 법령에 의해 설치된 이 위원회는 1926년 아이리쉬어가 사용되는 지리적 언어 상황을 고려하여 겔타트(Gaeltacht)지역을 설정함.
- 1926년 겔타트(Gaeltacht)는 크게 두 지역 즉, Fíor-Ghaeltacht와 Breac-Ghaeltacht으로 나뉨. 전자는 아이리쉬어가 80% 이상 널리 사용되는 지역이고, 후자는 아이리쉬어가 영어와 함께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으로 25%이상 80%미만으로 아이리쉬어가 사용됨. 부연하면, 전자는 일상생활에서 아이리쉬어가 사용되는 경우이고, 후자는 제한적 환경에서 사용되는 지역을 의미함.
- 1956년 이전과 이후 겔타트(Gaeltacht)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그림 III-10>을 비교. 왼쪽 그림은 1926년 경 겔타트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1956년 경 겔타트의 모습임

<그림 III-10> 1926/1956 겔락트 모습 비교



[출처: O'riagain 1997]

○ 1950년대 이전에는 농업, 어업과 관련된 지역에서 아이리쉬어가 많이 사용되었음. 하지만 1956년 사회적 여건, 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아이리쉬어를 말하는 인구수의 변동을 반영하여 겔락트(Gaeltacht) 지역을 다시 재정비 함. 현재 겔락트(Gaeltacht) 지역은 전 국토의 2%를 차지 함. 겔락트(Gaeltacht) 지역에서 아이리쉬어를 구사하는 인구의 변동은 다음 <표 III-7>와 같음

<표 III-7> 겔락트(Gaeltacht) 지역의 인구 변동과 아이리쉬어 화자 비율(1911-1986)

년도	아이리쉬어 주 사용 지역		아이리쉬어 부분 사용지역		총 계	
	인 구	아이리쉬어 화자(%)	인 구	아이리쉬어 화자(%)	인 구	아이리쉬어 화자(%)
1911	190,000	79	340,000	48	530,000	59
1926	168,000	77	308,000	38	476,000	58

년도	아이리쉬어 주 사용 지역		아이리쉬어 부분 사용지역		총 계	
	인 구	아이리쉬어 화자(%)	인 구	아이리쉬어 화자(%)	인 구	아이리쉬어 화자(%)
1936	148,000	81	278,000	41	426,000	56
1946	137,000	77	261,000	34	398,000	49
1961	122,000	72	244,000	34	366,000	48
1956 경계 수정 후						
1961					79,000	87
1971					71,000	83
1981					80,000	77
1986					83,000	74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리쉬어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최근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가 차원에서 아이리쉬어 보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보존 계획을 전개하기 시작함
- 2004년 아이리쉬어 보호에 대한 법령이 도입되었고, 2009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법령에서는 관공서에서 시행되는 공문도 민간어의 요구가 있을 시 아이리쉬어로 발행해 주도록 하고 있음

(3) 아이리쉬 인구 현황

- 인구 변동

<표 III-8> 아이리쉬어 사용 인구 변동

1922년	250,000
2007년	30,000

(출처: The Washington Post)

1922년	500,000 이상
1996년	10,000 - 20,000

(출처: Irish 시민 운동가, Robert McCartney)

- 2006인구 조사에 따르면 매일 아이리쉬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 85,000명, 가끔 사용하는 사람이 1백20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됨. 2011년 인구 통계에서는 사용 인구가 증가하여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94,000명, 가끔 사용한다는 사람이 1백30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됨

2) 교육을 통한 언어 보존 노력

- 1922년 독립과 함께 아이리쉬어는 국가 공식어로 지정되었고, 아울러 학교 필수 정규 과목으로 지정되어 아이리쉬어 사용을 강조하였음. 학교에서 많은 수의 과목이 아이리쉬어로 교육되었으며 아이리쉬어만을 사용하거나 아이리쉬어를 이중 언어로 사용하는 학교가 상당수에 이룸
- 이 당시 초등학교의 12.3%가 모든 과목을 아이리쉬어로, 43.2%가 아이리쉬어 이중 교육을 실시하여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에서 아이리쉬어로 수업이 진행됨
-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이상에 진학하는 비율이 10%정도 밖에 되지 않아 초등 이후에 아이리쉬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함. 결과적으로 대학 입학 등에 아이리쉬어가 많이 반영되지 않음. 특히 직업학교에는 아이리쉬어 사용이 저조하게 이루어짐
- 1980년대 3% 정도의 학생에게 아이리쉬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었고, 38%정도의 학생은 아이리쉬어 이외의 한 과목을 더 아이리쉬어로 교육을 받았음
- 아일랜드의 거의 모든 국립 대학교에서는 아이리쉬어 강좌가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리쉬어 언어 과목 이외에도 아이리쉬어를 사용하여 진행되는 강좌가 다수 있음

3) 미국 내 아이리쉬어 보존 노력

- Des Bishop이라는 코미디언은 아이리쉬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웃음을 제공하고, 아이리쉬어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인터넷 매체, TV 등 미디어를 통한 노력은 아이리쉬어라는 언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어 놓음

- 매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Elms College는 아이리쉬 문화 센터(Irish Cultural Center)¹⁾를 설치하여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리쉬 후손들이 아이리쉬 전통과 언어 이해에 노력하고 있음.
 - 미국에 위치한 Elms College에서 일정 기간 학습하고 이들은 다시 아일랜드로 건너가 아이리쉬 교류 대학에서 학습하게 함
 - 방학동안 특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아이리쉬어만을 사용하는 날을 지정하여 아이리쉬 문화를 함께 이해하는 몰입 프로그램을 운영
- 미국 내에서는 많은 교육 기관을 통해 아이리쉬어를 보존하려고 노력함. 많은 대학에서 아이리쉬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 다음은 그 대표적인 대학 사례들임
 - Boston College (www.bc.edu/centers/irish)
 - New York University (www.irelandhouse.fas.nyu.edu)
 - University of Nortre Dame (studyirish.nd.edu)
 - Elms College (Irish Cultural Center)
- 2009년에는 아일랜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Elms College에 위치한 아이리쉬어 문화 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리쉬어 사용을 독려하고, 아이리쉬어를 통한 미국과 아일랜드의 상호 교류를 촉진함
- 그 밖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아이리쉬어 보존과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임
 - 아이리쉬 아트 센터 <www.irishartscenter.org>
 - 캘리포니아 아이리쉬 문화 센터 <www.icccsf.org>
 - 아이리쉬 언어학회(Cumann na Gaeilge) <www.cumann-na-gaeilge.org>
 - 아이리쉬 문화 보존 센터 <www.adtf.org>

1) 아이리쉬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아일랜드, 특히 갤락트와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그리고 교육적 관계를 증진시킴;
 2) 아이리쉬 문화 센터와 아일랜드에 있는 교육 그리고 문화 조직 사이의 유대 관계를 증진시킴;
 3) 미국 뉴잉글랜드 서부 지역과 아일랜드 서부지역 간의 유대 관계를 증진시킴
 4) 미국 뉴잉글랜드 서부 지역에 있는 아이리쉬어를 말하는 미국의 사회 조직들 간의 학문적 연결고리가 됨
 5) 아이리쉬 문화 행사를 위한 공공 기관으로 역할을 함

5. 카탈란어(Catalan)

1) 지리-언어적 개관

(1) 지리/인구 역사적 배경

- 카탈란어는 로망스어로 피레니 산맥 양쪽에 8세기와 10세기에 생성이 되어 현재 4개의 지역 안도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사용되고 있음
- 카탈로니아에서 전체 인구의 30%가 카탈란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고, 50% 인구가 카스틸리안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음

<그림 III-11 > 스페인 언어 지도



<표 III-9> 카탈란어를 말하고 이해하는 인구 비율 (2003~2004)

지역	인구	말할 수 있는 인구	이해하는 인구
안도라 Andorra	78,549	78.9%	96.0%
카탈로니아Catalonia	7,134,697	84.7%	97.4%
발레릭 섬 Balearic Island	1,001,062	74.6%	93.1%
코뮤니탈 발렌시아나 Communitat Valenciana	4,806,908	53.0%	75.9%
Franja de Ponent (아라곤 Aragon)	45,357	88.8%	98.5%
North Catalonia (프랑스 France)	422,297	37.1%	65.3%
Alghero (사르디니아 Sardinia)	40,257	61.3%	90.1%
TOTAL	13,529,127	9,118,882	11,011,168

2) 카탈란 문학의 발달과 쇠퇴

(1) 역사적 고찰

- 카탈란어로 쓰인 첫 번째 문서는 카탈란 버전의 “판관의 서“ (포룸 유디쿰, Forum Iudicum) 와 설교집 “Homilies d’organya“ 가 12세기에 쓰여짐
- 카탈란어 사용은 13세기와 16세기 사이에 카탈란 아라곤 왕권이 지중해, 시실리, 나폴리, 아테네 까지 포함하는 지역으로 통치세력을 넓히던 시기일 때 확대되었는데 이시기에 단테와 동시대 인물인 라몬 룰 (Ramon Llull)와 여러 작가들의 문학 작품들이 서양문학의 최초 근대 소설로 간주되고 있음
- 이탈리아 작품인 신곡(Divine Comedy)의 최초의 번역본이 카탈란어 이었고 데카메론 (Decameron,10일간의 이야기)도 카탈란어로 번역 됨
- 많은 법률 문서들도 카탈란어로 쓰여졌는데, 이중 해상무역법규는 18세기까지 지중해 전체에 적용 됨

(2) 카탈란어의 쇠퇴

- 1474년에 첫 번째 책이 카탈란어로 인쇄되었으나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문학은 쇠퇴하는 시기를 겪음. 그럼에도 카탈란어는 법률제정, 정부, 그리고 통용 언어로서 그 위치를 유지했음
- 엘스 세가도르스 (수학자들/국가, 1940~1659) 전쟁 후 북부 카탈루냐 (Catalonia) 영토가 프랑스 왕권에 양도가 되고 난 이후 즉시 카탈란어는 교육과 공공 사용에서 금지됨
-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에서는 (1704~1714) 고대 아라곤 왕권의 지역이 카를레스 오스트리아 왕자 편에서 연합국과 함께 싸우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카탈란어 사용 지역은 그들의 제도를 박탈당하고, 카탈란어는 법률제정과 사법정권, 도시업무, 교육, 공증과 사업문서에서 제외됨

3) 카탈란어의 회복과 제도화

- 유럽의 낭만주의와 국수주의와 함께 많은 작가들이 19세기까지, 연극, 서술 등의 많은 작품들을 카탈란어로 출판했고, 언어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어 사전이 만들어졌으며 카탈란어가 지역과 국가신문에 등장함
- 20세기 초에 카탈루냐에서 카탈루냐 자치운동가들이 카탈란어 교육과 정부안에서의 카탈란어 사용을 요구했으며 특히 카탈루냐 지역사회기관인 Enric Prat de la Riba (정치가)가 카탈란어 연구 기관의 설립과 문헌학 부서설립에 큰 제도적 지지를 주었음
- 카탈루냐 지역사회기관의 첫 번째 회장은 첫 번째 국제 카탈란어 관례와 사전학을 만들었고, Prat de la Riba와 기관의 지지로 1913년과 1930년 사이에 철자법, 문법, 사전의 제도화가 가능해졌는데 이것은 통일된 현대표준카탈란어를 만들었음
- 1931년의 공화정체 (republican constitution)와 1932년의 자치권의 법령은 카탈루냐가 자치정부 (Generalitat/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재성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며,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카탈란어를 공용어로 선언했고, 카탈란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원함

4) 독재 정부와 언어박해

- 1939년과 1975년에 스페인 내전 (1936 ~ 1939)이후 독재 정부기간동안, 카탈란어에 대한 박해는 정점에 이르렀음
- 1940년과 1950년 사이에 프랑코 정권은 교육과 출판, 신문, 잡지, 전보, 전화 대화에서 카탈란어 사용을 금지했으며, 극장,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서, 행정, 공중, 법률, 사업 문서에서 카스틸리안어만 사용이 됨
- 카탈란어로 된 것은 모두 법적으로 아무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도로, 사업 표지판, 광고, 전반적인 국가 외관의 이미지들이 카스틸리안어로 쓰임
- 카탈란어는 카탈루냐와 발레릭 섬의 집에서 쓰이는 언어로 유지 되었고, 그 당시에는 이전 시대에 교육받았거나 망명한 작가들이 카탈란어로 중요한 작품들을 썼음

5) 카탈란어의 활성화

(1) 정치체도의 변화

- 독재자의 죽음과 함께 (1975) 카탈루냐의 민주적인 자유가 회복되었고, 1978년에 헌법은 언어적 복수성을 인정했음. 카스틸리안을 제외한 다른 스페인 언어들이 자치권 법령에 따라 공식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함
- 카탈루냐 (1979)와 발레릭 섬(1983) 법령은 카탈란어를 이 지역의 모국어로 승인했고 카탈란어를 카스틸리안어와 함께 공식어로 선언했음. 법령의 보호아래 카탈루냐, 발레릭섬 그리고 코뮌이텐 발렌시아나 자치 의회는 카탈란어를 지지하는 법을 승인했음. 자치 법률은 학교, 정부, 기관의 의사소통에 카탈란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함

(2) 교육 (Sabate, 1984)

-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카탈란어의 회복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는데, A Direccio General de politica Lluistica (General Office for linguistic policy 언어정책부)가 the Conselleria de cultura 에 세워졌

고 카탈란어 화자와 비화자를 위한 카탈란어 프로그램을 여러 단계로 만들어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특히 자치정부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함

- 현재 카탈란어는 초등, 중등교육, 직업학교에서 필수이며 카탈란어에 주어진 시간은 카스틸리안어보다 많고 이것은 외국어 공부시간과 같은 것으로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함
- 초등과 중등교육에 완전히 카탈란어를 사용하거나 특정교과목을 카탈란어를 사용해 가르치는 학교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카탈란어 문학을 대학에서 배울 수도 있고 전공으로 학위를 받을 수도 있음
- 카탈란어 교사 교육은 1961년 junta permanent per als Estudis de Catala (JAE)에 의해 만들어지고 Omnium Cultural에 의해 확립된 테스트를 통해 보장 받았고, 약 2천명의 교사에게 자격증이 주어졌고 일부는 대학에서 카탈란 어학을 전공함
- Rosa Sensat 이라는 서머스쿨(summer school)에서 교사들에게 카탈란어를 통해 활동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서머스쿨은 이웃 도시로 확대됨. 7월 첫 2주 간 열리는 백여 개 코스에 8천여 명의 교사가 등록하는 이 서머스쿨은 바르셀로나에 있음
- 자치정부의 복원과 함께 교육, 행정은 카탈로니아로 이전이 되었지만, 카탈란어 활성화에 몇 가지 극복해야 할 점들이 생김. 카탈란어 사용은 소수 집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데, 지역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던 카스틸리안어와 마찰을 빚기도 함

(3) 언론과 미디어

- 카탈란어로 된 영화, 카탈란어로 자막처리 된 외국영화 모두를 널리 홍보하고 있음. 사인과 광고판, 서적 출판, 시설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카탈란어 사용 캠페인을 진행
- 서적 출판, 영화관 그리고 다른 형태의 문화 활동은 가능해 졌지만 경제적 자원은 적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스페인 정부가 자금 지원에 인색한데, 상당 부분의 권력이 지방 정부로 이양이 되었기 때문임. 최

근에는 지원되는 금액은 이전에 지원되던 것보다 적으며, 또한 카탈루냐가 국가재무에 기여하는 것 보다 적게 받는 것임

- 카탈란어는 자치정부와 의회의 모든 절차에 사용이 되고 있으며, 자치정부의 공식 관보, 카탈로니아 국회의 공식 공고는 카탈란어로 되어 있음. 카스탈리안어로 발행되는 소식은 많이 축소되었음
- 지역 언론과 주간 신문은 주로 카탈란어로 되어 있음에 반해, 카탈란어로 된 매일 신문은 2개 밖에 없고, 카스탈리안어로 된 매일 신문이 널리 읽히고 있음

(4) 개인 활동 및 독립기관

- 프랑코 독재 정부 동안 카탈란 문화는 처음에는 비밀리에 그리고 개인의 노력으로 살아남음. 공식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시기에 지각 있는 카탈란 사람들이 기부금을 지원하여 서적 출판 그리고 여러 단체들의 운영비에 활용됨
- 2만 명의 회원이 있는 Omnium Cultural 이라는 독립단체는 문학상, 문화 전파, 학업 보조, 작가 지원, 문화 행사 진행과 같은 것들을 책임지고 있고, 자치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음

(5) 카탈란어 활성화의 문제점 (Vallverdu, 1984)

- 1978년부터 카탈란어는 초, 중등 교육에서 의무화가 되었지만 많은 기관에서 언어 사용을 하지 않음. 카탈란 대학에서도 이중 언어 사용이 공식적이지만 카스탈리안어로 수업을 진행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미디어 분야에서도 일관성 있는 노력이 저조함. 예를 들어 카탈란어로 된 TV 방송이 미약하고, 주가 운영하는 카탈란어 라디오 방송국도 하나 밖에 없음. 카탈란어 영화 상영 극장은 많이 증가했는데, 카탈란어 자막이나 더빙은 현저히 적음
- 카탈란어가 공식 언어가 되었음에도, 행정은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사법 영역에서도 카탈란어 사용과 관련된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적 표준 화법이 필요함

-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바르셀로나에서 젊은이들의 언어 선택과 사용은 민족 정체성과 연계성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됨. 카탈란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은 더 이상 카탈란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선호하지 않음. 개인들은 특정 관계, 개인 선호, 상황적 요인에 따라 언어를 선택함

6. 마오리어(Maori/te reo)

1) 지리-언어적 개관

(1) 지리/인구 역사적 배경

- 뉴질랜드 정부의 행정, 교육, 문화 정책은 영국을 모델로 하고 있고, 현재 영연방의 일원이지만 자신만의 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 1840년 마오리 원주민과 영국 왕실 사이에 맺은 와이탕기 조약은 뉴질랜드의 건국문서로 여겨짐
- 마오리어는 1000년 전 타히티부근의 하와이키(전설의 섬) 섬에서 태평양을 건너온 마오리족의 언어로 여겨짐
- 현재 뉴질랜드의 인구 440만 중 70%가 유럽의 후손이고, 15%인 60만 명이 마오리족임

(2) 언어적 상황

- 19세기 초까지 마오리어가 지배적이었으나 1860년대 초기에 파케하(뉴질랜드 백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영어가 우세한 언어가 됨. 20세기 중반 영어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마오리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함
- 학교에서도 마오리어 사용이 자제되었고, 학교에서 마오리어 사용 시 체벌을 받기도 함. 1920년대 단지 몇 개의 사립학교에서만 마오리 문법을 가르침. 결과적으로 마오리인 또한 개인적 발전을 위해 영어의 사용을 선호하였음

- 2차 세계대전 후 마오리인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학교, 일터에서 마오리어 사용이 허락되지 않음. 주택 정책은 마오리인들이 같이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도록 권유함. 학부모도 영어를 사용하게 했고, 직장 과 스포츠에서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함

1) 언어보전을 위한 상황

(1) 사회/정치적인 변화

- 마오리어 보존은 60, 70년대 마오리 변호사들과 법학 전문가들이 마오리어로 된 와이탕기 조약을 살펴보면서 마오리어 보존과 마오리 문화 보호에 대한 내용을 조약에 포함하자고 제안하면서부터 시작 됨
- 1960년에 마오리정책부에서 나온 “헌 보고서”는 동화 정책보다는 통합 정책으로 넘어가라고 조언함. 정부는 이에 대한 회답으로 마오리 사회복지 사업을 일반 복지 사업과 통합시킴
- 마오리인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전통 마오리 사회에서 분리 되는 또 다른 마오리 세대를 양산함. 결과적으로 많은 마오리인들은 전통적인 가치, 관습, 종교적인 믿음과 언어 없이 성장하게 됨

(2) 언어정체성

- 60, 70년대 미국의 행동주의의 영향으로 “마오리 인권기구와 Nga Tamatoa(젊은 전사들)”이 만들어짐. 한 운동의 예로 1970년대 “1에이커의 마오리 땅도 더 이상은” (Not One More Acre of Maori Land)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최대 시위가 발생함
- 경제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는 마오리 정체성(Maoritanga)이 무엇 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로 발전 되었고 여기에는 마오리의 문화 정체성이 크게 작용함
- 마오리 정체성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치가 포함됨
 - 확장된 친족; 나눔과 보살핌; 어른공경; 환경 보호
- 마오리 전통가치와 마오리 정체성의 결속을 위해 마오리어 지식이 필요했음. 언어는 마오리 정체성 (Maoritanga)을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짐

(3) 언어 운동과 정치 변화

- 1987년 “마오리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마오리어는 공식어의 지위로 올라섬. 이와 함께 마오리 몰입학교가 생겨남
- 2006년 설문에서 48%의 성인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마오리어로 이야기 하고 그 중 절반이 집에서 마오리어를 쓴다고 함
- 마오리어를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실생활의 언어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마오리어 위원회”가 세워짐. “마오리어 위원회”는 마오리어 현황 파악, 전문 용어의 순화와 교육을 감독하고 규제함
- 1989년 “교육 법률” 제정에 따라 마오리학교에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됨. 지속적인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와이탕기 조사위원회”는 뉴질랜드의 유산으로 마오리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뉴질랜드)정부는 마오리 언어보존에 실패했다. 이것은 와이탕기 조약에서 약속했던 것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몇몇 뉴질랜드인들은 마오리어의 상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마오리 문화는 뉴질랜드 유산의 한 부분이고 언어는 그 중앙에 있다. 만약 언어가 사라진다면 문화가 죽는 것이고 아주 고유한 어떤 것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4) 마오리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협력

- 뉴질랜드의 한 대학에서는 졸업생 대부분이 파케한(백인)이지만 이들 대부분이 마오리 언어코스를 등록하여 마오리 언어를 수강함
- 올 블랙스 (The All Blacks)라는 럭비팀이 출전하는 경기에서는 애국가의 1절을 마오리어로 부르고 팀원들은 하카 (마오리 전통춤)를 춤
- 공공장소에서 응급한 상황에 필요한 표지판을 제외하고는 마오리어가 함께 쓰임. 마오리어는 작게 표기됨. 관광지 등에서 마오리어로 된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는 내용의 회화 책을 관광객에게 판매함

(5) 교육

- 일찍 시작하기 (탄생~5세): Te Kohanga Reo(유아/유치원): 몰입교육 실시; 마래(Marae)에서 언어 등지라는 개념을 활용함
- 좋은 바탕(초등): The Kura Kauppa Maori (초등학교): 마오리 몰입 교육
- 안정성 조성 (중고등): Wharekura (마오리 중고등학교): 마오리 몰입 교육
- 계속성 조성(대학): 한 대학(The Wanganga o Aotearoa)에서는 모든 과목을 마오리어로 하지 않으나 마오리어 학습이 필수 과목으로 매 주마다 수업에 참여하거나 집에서 학습하도록 함
- 이 대학 교육에서는 1년에 3번, 1주 정도 마오리어 몰입교육 캠프에 참여해야 함
- 이 대학은 마오리 전통 예술 코스를 제공하고 전통 마오리 의학 및 또 다른 교양 과정을 제공함. 더 나아가 이 대학에서는 교사 자격증 과정, 학사 학위 과정을 개설함
- Korowai Manukura: 2003년에 교사 자격증 프로그램이 만들어짐
- The Kaumatua 프로그램: 가장 존경받고 부족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줌. 일종의 도제교육 프로그램.
- 마래 (Marae, 회의관): 전통적으로 마래에서는 부족의 각종 모임과 행사를 거행하거나, 사람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 함. 마래는 등지처럼 마오리어를 사용하고 마오리 전통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

(6) 가정

- 마오리어 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 학부모 세대 간 마오리어 사용 능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비록 부모들이 마오리어를 가정 내에서 사용하려고 해도 여전히 영어가 편안하고 즉각적인 대화에서 더 많이 쓰임

7. 오키나와어(Okinawa)

1. 오키나와어 소고

1) 지리-언어적 개관

(1) 지리적 위치

-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와 타이완, 즉 일본의 규슈지역에서 타이완 지역에 걸쳐있는 류큐열도(Ryukyu Islands)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큰 섬. 류큐열도는 16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길이는 100km정도에 이룸
- 역사적으로 류큐열도에는 류큐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음. 이 지역 사람들은 류큐열도에 위치한 섬들 간, 그리고 일본, 중국과도 빈번한 교류를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 접촉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 오키나와 현황
 - 오키나와 현 전체의 면적은 제주도 보다 약간 큰 2,255km²
 - 2011년 10월 통계에 따르면 오키나와 인구는 1,401,933으로 조사됨(2차 세계대전 전 후 50만명 - 1974년 100만 명 - 1991년 122만 명)

(2) 언어적 상황

- 류큐왕국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일본어와는 확연히 구별되었고, 류큐왕국을 구성하는 섬들 간에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음. 오키나와에서는 오키나와어(Okinawan Language)가 사용되고 있음
- 오키나와어는 1879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될 때까지 오키나와에서 널리 사용되었음. 일본에 편입된 후 일본 정부는 표준 언어 캠페인을 전개하여 표준 일본어 이외의 언어를 방언으로 규정하였음. 방언은 열등하고, 지적이지 못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내몰리게 되는데, 오키나와어도 예외가 아니었음
- 이후로 오키나와 언어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2차 대전 때에는 오키나

와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미국의 스파이로 여겨졌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음

- 2차 대전 후 미군정 통치 시절(1945-1972) 동안 오키나와 정부는 일본어 사용을 더 강조하였으며 일본어 사용을 강화하면서 일본과의 동질감(identity)을 강조하였음
-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 내 혹은 세대 간의 언어 전승은 단절되었음. 2차 대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오키나와어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었지만,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은 오키나와어를 구사하기가 힘들게 됨
- 언어 사용자의 감소 등으로 오키나와어는 사라져갈 상황에 처하게 됨. 2009년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endangered language) 목록에 등록됨
- 한편, 외국에 이주하여 살아가는 일본인 중 오키나와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67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50만 명 이상이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음
 - 이들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오키나와어 보존과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예를 들어, 브라질에 거주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을 위한 교재가 만들어지기도 하였고, 외국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오키나와어를 사용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예, 시카고 지역 오키나와 연극제: <http://www.youtube.com/watch?v=PhUnJ6eTiEQ>)
 - 전 세계에 거주하는 오키나와 출신 사람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면서 오키나와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음. 최근에는 오키나와에서 전 세계 오키나와 한상대회를 개최하여 오키나와 문화 및 전통 계승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2) 언어 보존을 위한 노력

(1) 행정 지원

- 현재 오키나와 현(도) 차원에서 법적으로 오키나와어 보존을 위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일본 정부 차원에서 오키나와어 보존에 관심을 갖고 있어 1963년에

최초로 사전을 편찬하기도 함. 일본국립국어원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오키나와 현(도) 차원에서 언어 정책을 펴기도 하지만 그 노력은 미미하고 각 도시별(오키나와에는 100여개가 넘는 도시가 분포하고 있음)로 언어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오키나와 문화, 전통 유지를 위해 개별 도시 중심으로 문화 보존을 위한 부서가 설립됨. 1955년 오키나와 시에 설립된 문화담당 부서를 필두로 각 도시에 이와 비슷한 담당부서가 설립됨. 1994년 오키나와 현(도) 정부에서 Departments of Cultural Affairs가 설립되어 다양한 문화 및 언어 진흥 업무를 담당함

(2) 학술 지원

- 일본 전역에서 많은 학자들이 오키나와 언어, 문화 등 오키나와학(Okinawan Studies)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3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오키나와의 전통 문화, 언어 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다양한 사전이 발간되어 오고 있음. 단순한 어휘 모음에서 체계적인 오키나와 언어에 대한 문법 설명을 포함하는 사전까지 편찬되고 있음. 특히 오키나와어와 외국어가 병기된 사전을 발행함으로써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학자들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함으로써 언어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학자들이 오키나와어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이들이 오키나와어에 대한 논문과 책자를 발행하여 소개함으로써 오키나와어의 학술적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음
-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오키나와어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고 있음
 - 예를 들어, 류큐대학교 도서관에 오키나와어 자료를 모아 놓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심도 있는 학술적 연구를 지원함. 아울러 온라인(on-line)을 통해 오키나와어 사전 그리고 오키나와어에 대한 정보(음

성 파일, 문장 정리 등)를 제공하고 있음(예, Ryukyus Language Data Base)

- You tube 등에 오키나와어를 사용하는 음악, 연극, 강의, 학자 인터뷰 등이 탑재하여 언어 보존과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감

3) 언어 현황

(1) Osumi(2001)의 연구

- 75세 이상 (현재 82세 이상)의 사람들은 오키나와어에 능숙함
- 56-65세(현재 63-72)의 사람들은 언어 사용 경험이 부족한(rusty) 화자, 즉 집에서 언어를 배웠지만 그 밖의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한 경험이 없음
- 39-55(현재 48-62)의 사람들은 언어 사용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semispeaker), 즉 어느 정도 오키나와어를 이해할 수 있지만 오키나와어를 사용하여 완전한 자기표현을 할 수가 없음
- 40세 이하(현재 47세)의 사람들은 오직 일본어만을 구사할 수 있는 언어 화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으며, 이들은 혼한 오키나와어 표현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음

(2) 류큐 신문(Ryukyu Shinpo 2006)

- 류큐신문이 2006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키나와어를 구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 50대 - 63.5%
 - 40대 - 34.4%
 - 30대 - 18.5%
 - 20대 - 7.9%
- 1990년 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즉 부모가 1972년 일본으로 병합된 후 태어난 사람들)는 오키나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3) 언어 사용 현황: 언어와 문화

- 오키나와어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음. 전통시장의 간판이나, 안내판 등에서 오키나와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심지어 오키나와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메뉴에서도 오키나와어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음
- 50-60대 사람들도 오키나와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보고됨
- 하지만, 오키나와 전통적인 음악과 춤(에이사)이 오키나와어로 불리고 있다는 것은 언어 보존을 위해 고무적임. 언어 보존은 풍부한 문화가 존재할 때 더 가시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오키나와어는 마을제 등과 같이 전통 문화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다음 웹페이지를 통해 사용의 실례를 살펴볼 수 있음

<http://www.youtube.com/watch?v=KrcWaXBE1LI>

<http://www.youtube.com/watch?v=cbJhByXBFf8>

<http://www.youtube.com/watch?v=1y8hnQhLU4E>

(4) 교육 현황

- 초중고 정규과정에서 오키나와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비정규 과정으로 최근 몇 개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오키나와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민간단체(오키나오어 보존회)의 협조로 강의 진행이 가능하게 됨
- 오키나와에 위치한 몇몇 대학에서는 오키나와어가 정규 강좌로 강의되고 있음. 하지만 기초 과정만 개설되어 있어, 고급 과정의 오키나와어 강좌 개설이 아쉽다고 함
-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면접시험 과정에서 오키나와어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함. 오키나와어에 대한 지식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 되고 있음

(5) 언론 매체

- 라디오, TV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오키나와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뉴스 또한 오키나와어로 방송되기도 함. 예를 들어 Okinawan Radio는 오키나와어를 사용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3대 즉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아들/딸들이 같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방학 동안에는 할아버지/할머니-손자/손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진행함
- 민간단체인 오키나와 언어보존회에서 4면의 신문을 발행하기도 함
- 몇몇 개인들은 오키나와어 보존에 헌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Fija Bairon은 영어 방송을 진행하면서 오키나와어를 홍보하고, 개인 강의, 일본 영자 신문에 투고 등을 통해 오키나와어 보존에 노력하고 있음

(6) 연구 센터

- 오키나와 섬 이외에 일본 본토에서도 오키나와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본토에 위치한 몇 개의 대학에 오키나와 연구소가 설치되고 정기 간행물이 발간되고 있음
 - 오키나와 내에는 International Institute for Okinawan Studies (류큐대학교), Institute of Okinawan Studies (오키나와국제대학교) 등의 연구소가 있어 오키나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연구의 결과물은 정기 간행물로 발간되고 있음. 다음 웹사이트에서 정기 간행물의 한 예를 살펴볼 수 있음
(<http://irc.okiu.ac.jp/detail.jsp?id=14000&menuid=4595&funcid=2>)
 - 일본 본토의 경우 와세다 대학의 Center for Okinawa Studies가 있고, 호세 대학의 Institute of Okinawan Studies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이들 기관은 정기적으로 오키나와 연구 대한 저널을 발간하고 있음
 - 국외의 경우 하와이 대학(University of Hawaii at Manoa)에 Center

for Okinawan Studies (오키나와 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오키나와 언어, 문화, 전통, 역사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언어의 경우 사전, 참고 서적 등을 영어판으로 발간함

(7) 민간 단체

- 언어 보존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대표적인 민간 단체는 2000년에 설립된 오키나와어 부활을 위한 모임(the Society of Okinawan Language Revitalization)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오키나와어 표기법 개발
 - 다양한 수업 교재 개발
 - 초, 중등에서 가르칠 오키나와 언어 교사 양성
 - 지역어(오키나와어)의 날 도입(2005년 처음 시작함)

8. 분석 시사점

1) 정책적 성과

- 사례 연구 해당 국가 내에서 법제화를 통해 소멸위기 언어를 보존에 노력하고 있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언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
- 일부 국가/지자체에서는 해당 언어 보존을 위한 특별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이중 언어 교육법을 제정하고 이중 언어 교육에 인디언 언어가 포함되도록 하고,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인디언 언어 보존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행정 차원에서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꾸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교육적 성과

- 소멸위기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 학교에서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소멸위기 언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소멸위기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에 위치한 많은 대학들에서는 소멸위기 언어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관련 연구소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언어, 문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해 조기 교육, 몰입 교육, 도제 교육 등 다양한 언어 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어린이 언어 습득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유치원 혹은 그 이전에 해당 소멸위기 언어를 교육하는 조기 교육이 실시되기도 함
- 국가 교육과정에 소멸위기 언어가 필수 교과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도 함
-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사회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도 함. 전통 문화, 축제 등을 통해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감
- 대학, 혹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언어 지도법에 대한 세미나 혹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언어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소멸위기 언어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개별 지역사회의 노력과 더불어 타 지역 소멸위기 언어에 대한 이해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감. 이러한 협력을 통해 서로의 상생을 모색해 나가고 있음
- 교육을 통해 언어 사용자를 양성하고 이들이 소멸위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특히 대학 교육을 통해 지역어 연구에 관심을 갖는 인재 양성(예, 지역 언어학자, 작가)에 힘씀
- 소멸위기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에 관심이 있는 타 지역 사람들도 소멸위기 언어를 학습하고 배워나가고 있음

- 지역 사회에서도 소멸위기 언어 교육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언어 전승에 노력하고 있음

3) 종합적 성과

- 언어 보존에 대한 노력으로 소멸위기 언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숫자가 증가하여 언어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각 지역사회에서 사용되는 소멸위기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감으로써 해당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
- 소멸위기 언어 보존과 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은 해당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함으로써 사용되는 언어의 자료화(documentation)가 폭넓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네스코(UNESCO), 구글(Google), 스미쑰니언 연구소(Smithsonian Institute) 등과 같이 국제기구들이 소멸위기 언어 보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써 소멸위기 언어 보존과 활성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IV. 제주어 정책 제언

1. 제주어 현황 및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

○ 제안 배경

- 소멸위기 언어 연구에서는 현황 조사가 중요함. Fishman(1991), 유네스코 등에서는 소멸위기 언어 보존과 활성화 기초 단계로서 해당 언어가 직면하고 있는 실태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아일랜드의 경우 1922년 국가 독립 이후에 주기적(10년)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한 아이리쉬어 사용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언어 정책에 활용하고 있음
- 미국 인디언 언어의 경우 많은 학자들이 일정 기간 인디언 거주 지역에 기거하면서 언어, 문화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언어의 본 모습을 파악하고 이들 자료를 다양한 문헌으로 출간하고 있음
- 오키나와의 사례에서처럼 자료화는 그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포함해야 하는데, 오키나와어를 사용하는 춤과 무용 등은 중요한 언어 자료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음
- 최근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은 방대한 자료의 수집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코퍼스화되고 아카이브로 저장되어 언어 보존과 언어 활성화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추진 내용 및 방안

- 언어 연구자를 중심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주어 자료를 수집하고,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자료의 코퍼스화 및 아카이브화를 진행해 나가야 함. 단순히 언어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적인 내용도 자료화에 포함되어야 함
- 주기적으로 언어 현황 파악, 사용 실태 조사, 그리고 사용자들의 태

- 도를 조사하여 제주어 보존의 초석을 다짐
- 구축된 자료를 활용한 언어 분석 및 관련 문화 분석이 진행되어야 함. 예를 들어, 제주어 사용자 및 비사용자를 위한 제주어 입문 저술, 다양한 제주의 전통을 제주어로 저술해 나가는 활동이 요구됨
 - 지역사회 혹은 가정에서 제주어가 중요하게 사용되는 전통 문화의 현황을 조사, 정리하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제주어의 사용 정도를 이중 언어적 관점에서 자료를 분석해 나감
 -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를 비롯한 양적 접근, 심도 있는 인터뷰 등을 활용한 질적 접근, 아울러 최근에 언어 자료화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예, DOBES) 등을 이용한 연구의 과학화 추진

2. 제주어 집중 사용 지역 및 전통 문화 선정

○ 제안 배경

- Fishman(1991)은 활성화 과정 5 단계에서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전통, 관습, 문화 활동 시 사라져가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아일랜드의 경우 아이리쉬어가 사용되는 특정 지역(겔타흐트(Gaeltacht))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아이리쉬어 보존과 사용의 중심이 되고 있음. 또한 아일랜드의 많은 축제에서 아이리쉬어어가 사용되고 있음
- 오키나와의 경우 마을제 그리고 외부 사람들을 위한 전통 공연에서 오키나와어를 사용하여 문화 원형 보존에 노력하고 있음
- 마오리 문화에서 마래(Marae)는 부족의 각종 모임과 행사를 진행하고 사람들이 모여 마을 일을 논의 했던 곳으로 이곳에서는 아주 어린 유아부터 장년층까지 모두 마오리어로 의사소통을 진행함. 마오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뉴질랜드 럭비팀인 올 블랙스가 참여하는 경기에서는 경기 시작에 앞서 애국가의 1절을 마오리어로 부르고 올 블랙스 팀원들은 관중들 앞에서 하카(마오리 전통춤)를 춤

- 카탈란어는 자치정부와 의회의 모든 절차에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자치정부의 공식 관보, 카탈로니아 국회의 공식 공고가 카탈란어로 발표됨

○ 추진 내용 및 방안

- 제주어를 보존하고 사용 확대를 위해 제주어 사용 지역(마을)을 운영함. 특히 이들 지역에서 제주어를 사용하는 소규모 모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제주어로 진행되어 오던 전통 관습(예, 마을제, 집안 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제주문화 원형을 복원하고 제주어 사용을 확대함
- 제주의 주요 행사(예, 도민 체전, 마을별 행사)에서 제주어를 사용한 행사 진행 및 운영을 시도해 나감
- 제주특별자치도 등 행정 차원에서도 제주어 사용을 시도함. 예를 들어, 도의회에서 제주문화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 등은 제주어로 진행하고, 제주 소식지 등에서도 전통 문화 관련 소식은 제주어를 사용하여 전달함

3. 행정의 다각적인 협조체제 구축

○ 제안 배경

- 미국 인디언 언어 보존은 인디언 자치 정부,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 하에 지역사회 및 대학교 등 연구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디언 언어 보존 및 교육에 힘씀
- 아이리쉬어는 아일랜드에서 공식어의 하나로 지정되었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요구 시 아이리쉬어로 문서를 배포해 주는 등 행정의 노력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1987년도에 마오리 법률이 지정되어 마오리어가 공식어로 그 위치가 격상되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언어 사용 위원회 등을 결성하여 행정과 지역사회가 서로 긴밀하게 언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스페인 또한 언어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부분적이거나 행정 기관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서도 카탈란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추진 내용 및 방안

- 제주어의 사용과 보존 현황 파악을 위해 주기적으로 제주어 실태 조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감
- 가능한 행정에서 제주어 사용 기회를 확대해 나감. 제주어 문서, 각종 행사에 제주어 병행 등을 실천의 예로 들 수 있음
- 제주지역 공무원 채용 시 제주어 능력을 갖춘 자를 널리 채용하도록 장려함
- 전문적인 연구 지원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제주어에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제주어 보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 제주어를 사용한 다양한 문화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 예를 들어, 제주 문화 원형을 영화, 음악,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등 현대적인 감각의 문화콘텐츠 개발
-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 더 나아가 국제적 차원에서 제주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 행정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감

4. 교육 정책

1) 학교 및 지역 사회 교육

○ 제안 배경

- 미국 인디언 언어 교육 정책은 조기 교육에서 몰입 교육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인디언이 거주하는 주(state)의 대학들에서 언어학자, 언어교육 전문가들이 대학 강좌, 주기적인 세미나, 학회 등을 개최하면서 언어 보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 독립과 함께 아이리쉬어를 공식어로 지정하고 교육과정에서 정규과목으로 개설함. 현재도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리쉬어만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아이리쉬어 강좌 뿐 만 아니라 타 강좌가 아이리쉬어로 진행되기도 함
- 마오리의 경우 유아부터 대학 과정까지 마오리어를 사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마오리어 몰입교육은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해 이미 널리 알려진 소멸위기 언어 활성화의 성공 사례임. 이러한 성공은 대학에서 마오리 부족이 아닌 백인(파케한)이 마오리어를 배우기 위해 마오리어 강좌 등록으로 이어지기도 함
- 또한, 일부 대학에서 마오리 캠프를 개최하여 마오리어, 전통 예술 코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전통 마오리 의학과정을 제공하기도 함
-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카탈란어의 회복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는데, 카탈란어 화자와 비화자를 위한 카탈란어 강좌를 여러 단계로 만들어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특히 자치정부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함
- 스페인의 경우도 초등, 중등, 대학 그리고 직업교육에서까지 카탈란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카탈란어 문학이 대학에서 수강이 가능하고 이를 전공하여 학위를 받을 수도 있음
- 오키나와어 연구는 대학과정 혹은 대학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일본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오키나와에 위치한 섬에서 뿐만 아니라 본토에 위치한 대학 등에서 오키나와의 언어와 문화를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학자들이 오키나와어 연구에 참여하면서 오키나와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일본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추진 내용 및 방안

- 효과적인 제주어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선 사례 연구에서 보았듯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사례 연구에서 소개된 교육 프로그램(예, 몰입교육)을 체계적으로 응용해야 함
- 제주어를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다양한 캠프 운영,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단계별 과업중심(task-based) 교재 개발

-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아울러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최근에 소멸위기 언어 보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조기(유아) 교육, 몰입 교육, 이중 언어 교육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제주 특화 교육 모델 개발
- 어린 시절에 시작된 교육이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 방안 강구
-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지역 사회 교육은 다양한 여가 활용 프로그램을 포함하는데 이들 프로그램에서 제주어 교육과 사용을 강화해 나갈
- 소멸위기 언어 보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 질 때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타 지역에서 제주어와 제주 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실천 방안으로 제주와 타 지역 대학 혹은 NGO 단체 간 활발한 교류 방안 모색

2) 제주어 교사 및 지역 언어 전문가 양성

○ 제안 배경

- 미국 인디언 언어의 경우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인디언 언어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관련 교육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음. 아울러 대학, 인디언 연구소 등에서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인디언 언어 교사들에게 교수 방법, 언어 지도의 실제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 마오리어 교사 양성 과정을 대학에 설치하여 마오리어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도 대학, 서머스쿨 등을 통해 카탈란어 교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오키나와의 경우는 NGO 단체인 오키나와 언어보존회에서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들에게 오키나와어 교육 자격증을 수여함. 참고 사항으로 오키나와 초등 교사 임용 시 오키나와어 이해 정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

○ 추진 내용 및 방안

- 대학에서는 제주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문 강좌가 개설되어야 하고 양성된 제주어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연구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야 함.
- 제주 지역 대학 등에서 제주어 교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 이러한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은 제주어 교사로서 더 나아가 지역 언어 전문가로 활동하도록 유도함
- 또한 제주 지역 대학 등에서 정기적으로 언어 지도를 위한 교육 방법론 세미나를 제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제주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어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지역 사회 교육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특히 제주어 교사 양성과정은 일반 교육 과정과 전문 교육 과정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음. 일반 교육 과정은 대학 등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이고, 전문 교육 과정은 일반 과정을 이수하고 제주어 도제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임
- 제주학 연구소 등에 분야별 지역 언어 전문가를 배치하고, 이들이 제주어 보존에 대한 계획, 교육, 연구 등을 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 시스템 구축

5. 제주어 도제 교육 제도 도입

○ 제안 배경

- 미국 인디언 언어 전문가인 버클리 대학교의 힌튼(Hinton) 교수가 개발하여 도입한 도제 교육 제도(Mater-Apprentice Program)는 성공적인 미국 인디언 언어 교육 모델로 활용되고 있음
- 뉴질랜드의 마오리어 보존을 위해서도 The Kaumatua라는 도제 교육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는 일정 지역(겔타흐트, Gaeltacht)에서 아이리쉬어만

을 사용하여 세대 간 자연스런 접촉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언어가 전승되고 있음

- 제주어에 유창한 분들이 도제 교육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제주어의 원형을 보존하고 보급시키는데 크게 기여함. 이는 또한 제주도민의 제주어에 대한 의식 고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추진 내용 및 방안

- 제주어에 유창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제주어 구사자(선생님)를 선정하고 다음으로 제주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동기가 높은 (젊은) 학습자를 선정
- 제주어 선생님 1인과 학습자 1인~3인 정도를 연결하여 정기적인 만남과 모임을 갖도록 해 나감 (참고로 미국 인디언 도제 교육에서는 1주일에 적어도 10시간 (20시간이 이상적임) 1년을 기초 과정으로 하고 있음)
- 학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 학습에 필요한 도구 등을 준비하여 제주어 구사자가 자연스럽게 언어를 사용해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
- 학습자는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자료화하여 정리하고 정리된 자료는 제주어에 유창한 사람들의 자문을 통해 보다 제주어다운 표현으로 발전시켜 나감
- 도제 교육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언어 교육 지침서가 제공되어야 함. 미국 인디언 언어 도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매주 별, 단계 별로 교육 과정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 관계 당국에서는 행,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제 교육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 구축
- 도제 교육 제도를 지역사회, 가정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함
- 도제 교육 제도를 통해 양성된 전문 인력은 제주어 교육, 세미나 등에서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어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 확산

○ 제안 배경

- 미국 건국에서 1950년 때까지 인디언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인디언 언어 말살 정책을 실시함. 전통 문화 소멸에 직면하면서 최근에는 인디언 언어가 자신들의 존재 및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함. 세미나 등에서 자신들의 부족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존재(자기소개, 부족소개)를 부각시키고 있음
- 마오리의 경우도 국가의 동화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조함. 마오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가치 정립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들이 강조한 중심 내용은 '확장된 친족, 나눔과 보살핌, 어른공경, 환경보호' 등임
- 아일랜드에서 아이리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겔탁트라는 아이리쉬 사용 지역에서 자신들의 전통을 정체성과 연결하여 교육하고 있음. 특히 미국 여러 대학에서 아이리쉬어와 문화가 교육되고 있는데 미국 내 아일랜드인들의 정체성 회복 운동에 근간을 제공해 줌
- 오키나와에서는 일정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마을제를 개최하고 미디어를 통해 널리 홍보하고 있고, 상시로 운영되는 오키나와 전통문화 공연을 통해 오키나와 문화와 언어에 대한 정체성을 파급시키고 있음
- 제주어는 제주의 문화와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무형적 수단으로, 제주어를 널리 사용하는 것은 곧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해 나가는 데 필수적 요인임

○ 추진 내용 및 방안

- 제주를 상징하는 무, 유형 자산을 선정하고, 선정된 문화유산을 제주어로 홍보하고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주의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함
- 제주어가 제주의 전통 행사와 문화 축제에 더욱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제주어가 곧 제주라는 인식 확장

- 일상생활에서 제주어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 제주어로 인사하기, 제주어로 방향 물어 보기 등 제주어 사용 캠페인 전개
- 제주를 나타낼 수 있는 역동적인 전통 음악과 춤 등을 복원하고 현대화 작업을 통해 대중들의 인지도를 향상과 지지를 확보해 나감. 또한 이들 공연을 상시 접할 수 있도록 전통 문화 공연 시설 확충
- 탐라문화제와 같이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에서 제주어 사용을 확대,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탐라문화제 홍보를 강화 나감

7. 연구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국내 및 국제네트워크 강화

○ 제안 배경

-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제기구(예, 유네스코, 스미쏘니언 연구소, 구글 등) 등에서 보존을 위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세계의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은 국제 학회 등을 통해 타 소멸위기 언어 현황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음
- 마오리어의 몰입교육은 이미 소멸위기 언어 교육을 위한 성공 사례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입 교육 방법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음
- 오키나와어의 경우 외국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소멸위기 언어(endangered language) 연구에 발맞추어 제주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제주어의 존재와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 연구 진행도 가능함

○ 추진 내용 및 방안

- 제주 주변에 소멸위기 언어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사회(예, 오키나와, 타이완, 하와이 등)와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감.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 간에 정기적 학술

- 대회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함
-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 혹은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국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해 나감. 또한 소멸위기 언어의 보존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언어 보존에 힘쓰고 있는 국제기구와 공동의 연구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실제로 본 연구 과정에서 하와이 대학, 유네스코 그리고 스미쏘니언 연구소 등에서 제주어 연구에 많은 관심을 표명함
 - 언어보존과 활성화에 대한 국제 학회에 참여하여 제주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제주어 연구 능력을 강화해나가고, 보존의 필요성을 홍보해 나감.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외 학자들의 제주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음
 - 국가 혹은 지역 사회 간 시민 단체의 교류를 촉진하여 각각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언어 보존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나감
 - 국제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언어 보존의 사례를 살펴보고 제주어 보존 모델로 활용함
 - 국내 각 지역별 지역어 연구를 진행하고, 서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어와 비교연구를 수행함. 지역어 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은 제주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음

8. 매스 미디어 역할의 강조

○ 제안 배경

-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세계를 연결해 주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사례 연구 언어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언어 정책, 언어 역사 등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탑재하고 있음
-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 연구 언어들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미국 인디언 부족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조해 나가고 있음
- Des Bishop이라는 코미디언은 아이리쉬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웃음을 제공하고, 아이리쉬어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인터넷 매체, TV 등 미디어를 통한 노력은 아이리쉬어라는 언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어 놓음
- YouTube 등에 오키나와어를 사용하는 음악, 연극, 강의, 학자 인터뷰 등이 탑재되어 있어 언어의 연구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고 있음
- 제주어의 경우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자료 탑재 등이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남

○ 추진 내용 및 방안

- 타 소멸위기 언어들이 인터넷 매체에 어떻게 탑재되어 있는지 선행 연구를 진행함
- 제주의 문화 원형을 담은 언어, 문화 콘텐츠를 복원하고 이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함
- 제주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예, 축제, 제주학 학술대회 등)를 YouTube 등에 탑재하여 제주어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강화
- 제주어 역사, 제주어 현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영어 등 외국어로 정보 제공
- 인터넷을 통해 제주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주어 사전 등을 제공
- 제주 도청 등 도내 기관에서 홈페이지의 일부를 제주어로 제공함으로써 제주 문화 및 제주어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감
- 제주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화, 음악, 문학 작품 등을 인터넷 아카이브에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9.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사용 강조

○ 제안 배경

- 미국 인디언 언어는 조기 교육 등을 강조하면서 가정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을 중시하고 있음. 인디언 보호 구역 내의 다양한 표지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 일정 지역에서 아이리쉬어가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아이리쉬어가 공공질서(예, 교통 표시)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카탈루냐 자치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 활동(영화, 음악 등) 그리고 간판 등에 카탈란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아울러 다양한 문학 작품이 출판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카탈란어가 자리잡고 있음
- 마오리의 경우도 일부 가정에서 마오리어만을 사용함. 공공장소에서는 위급 상황에 필요한 표시판을 제외하고 마오리어가 병기됨. 관광지 등에서는 마오리어로 회화 책이 판매되기도 함

○ 추진 내용 및 방안

- 공공장소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제주어를 활용한 표지판을 사용하도록 유도함
- 제주어 사용 강화 및 확대를 위해 번역, 창작 활동 강화. 예를 들어, 표준어로 된 작품을 제주어로 옮기는 번역 사업 강화. 특히 어린이를 위한 작품을 옮김으로써 조기 교육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음
- 빌딩, 상호 이름을 제주어로 확대해 나가고, 안내 소식지 등도 제주어를 병기하여 이중 언어로 발행될 수 있도록 함
- 일상생활에서 제주어를 접할 수 있도록 제주어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예, 제주소식지, 지역 방송, 모임 연락 등)를 활성화 해 나감
- 제주어가 친숙하게 될 수 있도록 숫자, 색깔 등과 같은 일상생활 중심의 제주어를 보급해 나가고 제주어를 배울 수 있는 게임, 그림 등을 교육 자료로 개발함

10. 제주어 현대화를 위한 노력

○ 제안 배경

- 캘리포니아 인디언 연합 등에서는 언어 위원회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활동과 실행 계획을 협의하고 계획함. 교육에 있어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언어 교육 방법론을 소개하고,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내용을 반영한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 아이리쉬어의 경우 현대화된 인터넷 매체, TV 등을 통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Des Bishhop이라는 코미디언은 아이리쉬어를 통해 웃음을 주고 있음
- 마오리어 위원회가 일상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마오리어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설치됨. 위원회에서 전문 용어 순화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짐

○ 추진 내용 및 방안

- 살아있는 제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제주어 현대화 작업이 널리 시행되어야 하는데,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새롭게 나타나는 어휘나 단어 등을 제주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생활 주변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제주어를 선정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
- 학습 교재에는 전통 제주 문화와 함께 현재 제주의 모습을 담아 낼 수 있는 내용이 제주어로 수록되어야 함. 교재 개발과 함께 최근 널리 활용되는 언어 교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음
-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어가 친근하게 사용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시각적 효과를 더하여 관광지를 제주어로 소개하는 안내판 등을 개발하여 활용함
- 제주어의 현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말과 더불어 언어 다양성을 수용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우리말과 제주어가 널리 사용되는 이중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함
- 제주와 관련된 웃음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주어로 개발하여 보급함. 제주 외 타 지역에서도 제주어에 대한 인식 강화

V. 연구 결과

- 본 연구는 외국의 소멸위기 언어 보존 사례 검토를 통해 제주어 보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그 목적을 둠
- 연구 방법은 소멸위기 언어와 관련된 자료 검토, 언어 사용 현장 및 교육 현장 방문, 그리고 언어 보존에 힘쓰고 있는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진행함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 세계 언어에 대한 이해와 소멸위기 언어 현황을 살펴봄
 - 소멸위기 언어 보존에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의 노력, 연구 학자들 간의 협력 방안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봄
 - 소멸위기 언어 자료화의 필요성 및 언어 보존과 활성화 당위성에 대한 검토. 소멸에서 부활로 이어진 히브리어 사례를 통해 언어 자료화의 중요성을 이해함
 - 미국 인디언 언어, 아일랜드의 아이리쉬어, 스페인의 카탈란어, 뉴질랜드의 마오리어,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어를 중심으로 이들의 언어 보존을 위한 행정, 교육, 민간의 노력 등을 살펴봄
 - 사례 연구 검토를 통해 소멸위기 언어 연구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연구 방향을 살펴봄
 - 소멸위기 언어 보존 및 활성화 사례를 통해 제주어 보존을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어 보존 정책의 방향을 제안함
- 소멸위기 언어 사례 연구의 시사점
 - 해당 국가 내에서 법제화를 통해 소멸위기 언어를 보존하고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
 - 국가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국제적 연구 기관에서 언어 보존과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
 - 조기교육, 몰입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발하게 교

육이 진행되고 있음

- 대학, 연구소 등 전문 기관에서 체계적인 언어 자료화를 진행하고 이와 함께 언어 교육을 위한 방법론 개발, 교사 연수 세미나 개최, 수준별 교재 개발 등을 통해 소멸위기 언어교육 확산에 노력하고 있음
- 다양한 교육제도의 도입으로 소멸위기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촉발되고 있음. 언어 교육은 또한 시민 단체 및 개인들이 언어 보존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음

○ 제주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멸위기 언어인 제주어 보존을 위해 외국의 사례 및 국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포함한 정책 제안은 본 연구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음

본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함

The UNESCO Endangered Language Programme is largely dependent on the active involvement of linguists and language advocates, that is, on long-term active involvement. **Yet it is the community members, not outsiders, who do or do not maintain their languages: it is their choice as to whether and in what way their languages should be revitalized, maintained and strengthened.** This document is accordingly intended to be useful to community members as well as to concerned linguists and representatives of organizations.

(유네스코의 소멸위기 언어 프로그램은 주로 언어학자와 언어 활동가들의 오랜 시간동안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소멸위기의 언어를 유지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것은 외부인이 아닌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들이다. 즉 이들 언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유지되면서 강화되는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선택에 달렸다. 따라서 유네스코가 제공하는 이러한 안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 뿐 만 아니라 관계된 언어학자 그리고 조직 참여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 문헌

- Brenzinger, M. (ed.) (2007) *Language Diversity Endangered* Berlin: Mouton de Gruyter.
- Bres, J. (2008). Planning for Tolerability: Promoting positive attitude and behaviours towards the Maori language among non-maori New Zealand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Wellington, New Zealand.
- Corson, D. (1999) *Language Policy in Schools: A Resource for Teachers and Administrators*. London: Routledge.
- Fabregat, C. E. (1984). Ethnocentricity and bilingualism in Catalonia: the state and bilingu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Language* 47, 43-57.
- Fishman, J. (ed.) (2001) *Can threatened languages be saved?*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Generalitat de Catalunya. (2010). *Catalan, language of Europe*. Barcelona.
- Harshav, B. (1993). Language in time of r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mmelman, Nikolaus P. (1998) "Documentary and descriptive linguistics" *Linguistics* 36: 161-195. Berlin: de Gruyter
- Hinton, Leanne. 1999. Teaching endangered languages. In *Concise encyclopedia of educational linguistics*, ed. B. Spolsky. Oxford: Elsevier Science.
- Indigenous Language Institute (2009). *Building on Experiences of Maori and Hawaiian Language Revival*. New Mexico: Soldier, L. L.
- King, Kendall A. et al. 2008. *Sustaining Linguistic Diversity: Endangered and Minority Languages and Language Varieties*. Washing,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Krauss, M. 1992. The world's languages in crisis. *Language* 68. 4-10.
- Ladefoged, P. 1992. Another view of endangered languages. *Language* 68: 808-811.
- Lewis, P. (ed.) (2009).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16th edn.

- Dallas: SIL International.
- McCarthy, T. (2012) *Language Planning and Policy in Native America History, Theory, Praxis*.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O'riagain, P. (1997). *Language Policy and Social Reproduction: Ireland 1893-1993*.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Romaine, S. 2008. Linguistic Diversity, Sustainability, and the Future of the Past. In Kendall King (eds.) *Sustaining Linguistic Diversity: Endangered and Minority Languages and Language Varieties*. Washing,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PP. 7-21.
- Sabater, E. (1984). An approach to the situation of the Catalan language: social and educational us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Language* 47, 29-41.
- Sivan, R. (1980). *The revival of the Hebrew language*. Jerusalem: E. Rubinstein.
- Shur, S. (1990). *Nation building and national language: The revival of the Hebrew language*. Lashon Veivrit 6: 29-34.
- Urla, J. (2013). Catalan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6(2), 177-181.
- Vallverdu, F. (1984). A sociolinguistic history of Catala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Language* 47, 13-28.

<인터넷 참고 자료>

- <http://www.unesco.org/new/en/culture/themes/endangered-languages/>
- http://www.festival.si.edu/2013/One_World_Many_Voices/
- <http://www.endangeredlanguages.com/>
- <http://www.ethnologue.com/>
- <http://www2.johnabbott.qc.ca/~geoscience/ME/WorldLanguageFamiliesMap.htm>
- <http://www.ilinative.org/share/programDirectory/programDirectory.xml>
- Boston College (www.be.edu/centers/irish)
- New York University (www.irelandhouse.fas.nyu.edu)
- <http://www.youtube.com/watch?v=PhUnJ6eTiEQ>
- <http://www.youtube.com/watch?v=cbJhByXBFf8>
- <http://www.youtube.com/watch?v=1y8hnQhLU4E>
- <http://irc.okiu.ac.jp/detail.jsp?id=14000&menuid=4595&funcid=2>

Abstract

A study on the preserv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Jeju language through the case studies of other endangered languages

- With the designation of the Jeju language as an endangered language by UNESCO in 2010, much social and linguistic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Jeju language. Along with such attention, it is needed to get a mor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it and raise awareness about the benefits of bilingualism in Jeju. Moreover, in order to provide some insightful thoughts on the preserv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Jeju language, it would be ideal to look over other cases of language preservation and revitalization.
- At present, the use of the Jeju language has been decreased dramatically so that it is urgently needed to document the Jeju language in various fields and make efforts for revitalization. The revitalization itself will lead to the promotion of cultural values of Jeju as well as the identity of people in Jeju.
-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wofold: 1) It is to examine the language preservation and revitalization efforts made by governments, institutions, private groups and individuals in other countries. 2) It is to suggest practical and adaptable ways for preserv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Jeju language.

- This current study includes four main sections. The first section introduces the rationale and the methodology of the current study. In the second section, the study looks over the status quo of endangered languag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population and usage statu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cooperations for language preservation and revitalization; current efforts being made by the Jeju government, institutions, private groups and individuals. In the third section, this study examines several case studies (American Indian, Irish, Catalan, Maori and Okinawan) in language preservation and revitalization in other parts of the world. Finally, the present study manages to make some insightful suggestions on language policy and education in Jeju through the case studies of other endangered languages.

Keyword : Endangered Language, Heritage Language, Indigenous Language, Jeju Language, Language Conversation, Language Documentation, Language Policy, Language Preservation, Language Shift, Language Threatening, bilingualism, Language Use, Minority Language, Revitalization, UNESCO

연구진

연구책임 양창용 제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양세정 제주대학교 시간강사

제주학연구 4

소멸위기 언어 보존 사례 분석을 통한 제주어(제주방언) 보존 방안

발행인 || 공영민

발행일 || 2013년 10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90-162 제주시 아연로 253

전화 : (064) 726-6138 팩스 : (064) 751-2168

홈페이지 : www.jst.jdi.re.kr

인쇄처 || 하나CNC

ISBN : 978-89-6010-335-1 9309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